

## 경기도, 코로나 시대 수출 성과 새 모범 만든 중소기업 14개사 표창



경기도는 7일 라마다 프라자 수일 호텔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혜를 모아 수출성과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내 수출기업 14개사를 표창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피피케이 등 수출성과를 창출하고 수출혁신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피피케이 등 도내 기업 13개사 및 공공기관 1곳에 '수출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 수출을 시작한 기업 중 실적 우수한 100개사를 '수출프론티어 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IT, 기계, 뷰티, 생활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5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성적을 거둔 ㈜미모디스플레이코리아 등 5개사를 '수출 신인왕'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의 각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고, '수출 신인왕'은 이보다 높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출 유공 표창을 받는 ㈜피피케이 이는 정제 압축성형기 등 제약 기기 제조기업으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 장비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팬데믹 시대에 세계 47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900만 달러였던 수출실적이 올해는 1,000만 달러로 성장했고, 직원복지와 청년고용 창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등 청년 친화적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분야 신인왕으로 선정된 ㈜미모디스플레이코리아는 USB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1,529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을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4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3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5점), 경

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10점), KOTRA 사장상(5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5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10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상(5점),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상(2점) 등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수출기업인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한규 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노력으로 눈부실 만한 수출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에 모두 박수를 보낸다"라며 "경기도에서 수출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결, 판로개척,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표창 및 인증 대상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로 참석자를 제한했으며, 손 소독 및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조혜영/기자

## 충북도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용금액 100억 원 돌파



###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6일부터 경품이벤트 실시

충북형 공공배달앱 '떡깨비'의 누적 이용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떡깨비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에 민간앱을 결합한 민관 협력형 배달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고객 중개수수료로 인한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9월 15일부터 도입됐다.

11월 말 기준 가맹점 수 7천여 개소, 가입자 13만 9천명, 누적 주문 52만 건, 누적 이용금액 102억 원에 달하며, 민간배달앱 대비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11억 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제공했다.

떡깨비에서는 그간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달 6일부터 경

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떡깨비 이용자는 6일부터 22일까지 출석체크 및 배달 주문 시 받은 응모권으로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며, 당첨된 고객에게는 아이폰13, 아이패드, 에어팟, 떡깨비 포인트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연말을 맞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강성한 경제기업과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떡깨비를 사용해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소비자가 떡깨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효성중공업, 대구 감삼동에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I' 공급

감삼동에서만 3번째 해링턴 플레이스, 3차 분양에서도 흥행 이어갈지 관심

최근 대구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달서구에서 효성중공업이 초고층 주상복합 공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이달 달서구 감삼동 505-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I'는 감삼동에서만 3번째 공급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브랜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48층에 전용면적 84㎡, 94㎡ 아파트 363세대와 84㎡ 오피스빌 203실 등 총 566가구의 중대형 위주의 고품격 공간과 평면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공급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320가구)'과 2020년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II(246가구)'와 합하면 총 1,132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번 3차 단지는 총 566가구로 1, 2차 단지를 합한 민공 규모가 큰데다 그 동안 효성중공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단지로, 올해 대구에 공급되는 단지들 중에서도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단지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I'는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1~3차 단지를 포함한 죽전 역세권 4천여 세대 초고층 주상복합타운 개발

의 중심입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정동초, 본리초를 비롯해 10여 곳의 초, 중, 고 및 학원가, 본리도서관 등 뛰어난 학군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관심이 높은 곳으로, 도보권에 위치한 홈플러스와 하나마트, CGV(예정), 대구약생문화센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대구의 대표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뛰어난 교통환경도 강점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I'는 대구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에 들어서며, 죽전역 사측에는 출입구가 신설될 예정이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있고, 성서C, 남대구C를 이용하면 주변도로의 접근도 용이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지난 6월 말 준공된 KTX 시대구역 과도 가까이 KTX 이용은 물론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최근 신청사 조성 호재와 함께 생활 인프라 개선,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및 주거단지 공급 등이 이어지며 부

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수성구, 중구와 함께 대구광역시를 이루는 3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548,694명(2021년 9월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대구 중심권에 위치해 있는데다 대구 도심지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해 달성군 일대의 산업단지, 그리고 구미시로 접근성도 뛰어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다.

특히 최근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형 호재가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는 중구 본청과 북구 본청 청사를 통합해 달서구 두류3동 옛 두류정수장 터에 들어설 예정이며, 청사 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 및 생활 인프라 등의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청사 사업은 최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제설계공모, 건축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건립 규모는 9만 7,000㎡보다 8,496㎡(8.75%) 증가한 10만 5,496㎡가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규모가 커지면서 예상 사업비도 3,000억원에서 3,312억원으로 늘어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상주인과 유동인구 및 배우수요 증대, 그리고 각종 생활 인프라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링턴 플레이스'의 브랜드파워도 흥행요소로 꼽힌다.

'해링턴 플레이스'는 지난 2013년 신규 브랜드를 탄생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6년 '해링턴 플레이스'의 전신인 '백년기약' 브랜드로 수성구 매곡동과 신매동, 범어4동에 아파트 공급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감삼동을 비롯해 남산

동과 산암동, 민촌동 등에서 우수한 분양실적을 달성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꼽힌다. 2019년에는 감삼동에 공급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이 평균 14.98대 1, 민촌동의 '해링턴 플레이스 민촌'이 18.06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가 24.55대 1, 남산동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가 평균 42.48대 1, 최고 70.9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률 기록하는 등 대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I'는 금일(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곡동 1258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분양일정은 12월 13일 특별공급에 이어 14~16일 청약 진행하며, 22일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박류석/대기자



##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III



politics

정치 I

2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범정부문화도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 ▲실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등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시 시(市)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관내 은퇴자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제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만족도가 높은 학교예절교육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방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아이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와 도서관 건립 시 BIP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회수불능도서 최소화 노력 당부 ▲성북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폐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으로 보육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포은아트홀 관람객이 아라피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 ▲문화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협약 사업 추진 제안 ▲축구 인재 육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노력 당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향후 신축 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현시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의 경우 체육대회 종료 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주차장 확보 당부 ▲용인시평생학습관의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존 수영장 이용 회원의 대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소규모 지역특성화 축제 발굴해야

### 민간 주도 축제 육성·잠재력 있는 축제 지원해야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지난 6일 열린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우수한 소규모 지역축제에도 도비를 지원해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시·군 대표 축제에 최대 6억 원을 지원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남진 장흥 물축제나 명

랑대점축제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표축제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 정작 잠재력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에는 지원이 미흡해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박 의원은 "고흥 녹동JC(청년회의소)가 주도하고 있는 '바다 불꽃 축제'의 경우 20년간 이어져 온 뿌리와 전통이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미해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라며 "이미 커져버린 축제에만 지원하지 말고, 소규모 지역축제에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축제의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공정성 등 엄격한 잣대만 가지고 지원을 하니,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독특한 축제에는 도비 지원의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불필요하고 쓰지도 않는 예산에 도비를 확보하는 것 보다 적재적소,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인 것 같다"며 현행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 이은주 의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치전달식 참석

### 이은주 시의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관 '2021년 사랑의 김치전달식' 참석



지난 6일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1층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은주 총장을 비롯하여 이

번 행사에 큰 도움을 준 무안군 정상철 농민회장, 영농조합법인 꿈꾸는 들녘 박현호 대표, 무안군 농정국 식품산업팀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 의원도 2년 연속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행사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전라남도 무

안의 재료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를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가장 먼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동행해 주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 두 차례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전라남도 무안군-영농법인까지의 완벽한 삼위일체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김치전달식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추운 겨울로 몸과 마음이 힘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되어 줄 것."이라며 "지금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 충청남도의회, 학부모 총회 운영 시·공간 제약 없앤다

###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남도의회는 6일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등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규

정했다. 조례는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에서,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 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신이나 우편을 포함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시스템을 학부모회 운영에 적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부모회의 자율적이

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전보다 더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최정근기자

## 백혜련, 생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백혜련 의원은 7일, 서수원 지역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 10억원 ▲탐골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원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시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오목천동의 오목호수공원, 호매실동의 물다미공원·물향기공원이다. 파손된 산책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에 이루어짐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탑초등학교 인근의 탐골어린이 공원에는 시설물 노후화 개선과 추가 놀이·운동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6억원도 확보했다.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지역들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일부 영상 식별 능력이 떨어진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예성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서수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서수원 발전에 이끔 역할 사업들과 더불어 생활·안전 분야의 예산과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 지역 어느 한 곳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광명광성초로부터 감사패 수상



별빛누리관(체육관, 급식실) 건립 예산 62억 원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에 큰 기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이 지난 3일 광명광성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이 통합된 별빛 누리관 건립과 학교 본관건물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을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광명광성초 김선미 교장, 원정혜 학교운영위원장, 최민지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 교직원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동안 유근식 의원이 평소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환경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주어 감사하는 평을 받았다.

김선미 광명광성초 교장은 "유근식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광명시 교육발전, 특히 노후화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고, 본교도 큰 도움을 받았기에 학부모님들과 함께 감사패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여의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혜영기자

## 화성시의회 의장,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 참석하여 재인증 축하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 및 박연숙 의원은 7일 화성시청 민원동 앞에서 열린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에 참석하여 인증을 축하하였다.

'국민행복민원실'은 2014년부터 도입·운영되기 시작한 민원실 표준모델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화성시청 민원실은 2018년 신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고, 이번에 재인증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와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인증되었다.

이번에 경기도내 신규인증을 받

은 지자체는 양주시와 광주시이며,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화성시와 파주시이다. 심사지표는 공간 및 서비스 점수와 체험 및 만족도 점수를 합하여 선정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유민 의장은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성시의 얼굴이다. '국민행복민원실'의 재인증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설과 서비스로 화성시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 또한 시청 민원실을 본보기로 삼아 화성시 전역의 읍면동 민원실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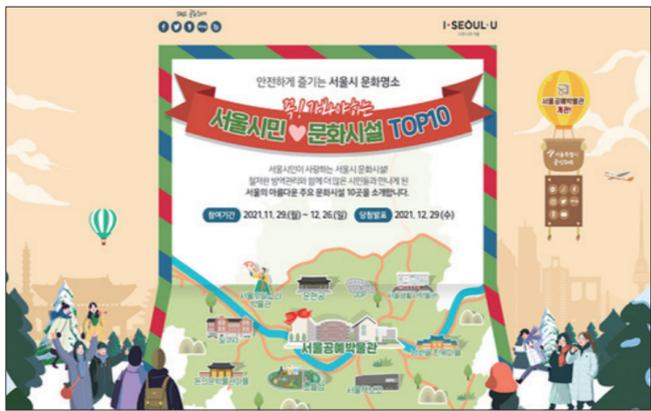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성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r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서울시,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서울시 문화시설 TOP10'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 진행



서울시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꼭 가봐야 하는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문화시설 TOP10' 온라인

캠페인을 12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대상이 된 문화시설 열 곳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현궁 ▲DDP ▲서울생활사박물관 ▲틸쿠사 ▲서울공예박물관 ▲남산골한옥마을 ▲돈의문박물관 마을 ▲노들섬 ▲서울책보고이다. 참여 시민 중 총 300명을 추천하여 커피기프트콘, 머핀 기프트콘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12월 29일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공예박물관의 정식 개관식에 맞추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시의 문화시설 열 곳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민들은 쿼즈 이벤트와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서울시의 문화시설들을 체험하게 된다. 쿼즈 이벤트는 '퀴즈로 알아보는 서울시민♥문화시설'이라는 주제로 4개의 주제에 따른 문화시설 관련 퀴즈를 직접 풀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공예 ▲고궁·자연 ▲박물관·역사·마을 ▲음악·서적 주제에 관련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추면 응모가 가능하다. 각 카테고리 별 퀴즈의 정답을 맞춘 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추천하여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인증샷 이벤트는 '당신의 아름다운 서울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문화시설 10곳에 대한 방문 사진을 찍은 후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사진에 본인이 등장하지 않아도 응모가 가능하나, 타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나 문화시설 10곳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는 참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여자 중 총 100명을 추천하여 단긴

마련했다. ▲공예 ▲고궁·자연 ▲박물관·역사·마을 ▲음악·서적 주제에 관련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추면 응모가 가능하다. 각 카테고리 별 퀴즈의 정답을 맞춘 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추천하여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인증샷 이벤트는 '당신의 아름다운 서울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문화시설 10곳에 대한 방문 사진을 찍은 후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사진에 본인이 등장하지 않아도 응모가 가능하나, 타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나 문화시설 10곳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는 참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여자 중 총 100명을 추천하여 단긴

도너츠 베이컨 에그 잉글리쉬 머핀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서울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에 대한 '소문내기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캠페인 홍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친구태그 로 소문낸 시민 중 50명을 추천해 커피 기프트콘을 추가로 증정한다. 주유대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의 문화시설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쿼즈 이벤트와 현장 이벤트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관악구, 2년간의 대응 기록을 담은 코로나19 백서 발간

## 강동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 선정

강동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인 '옥외광고물 수준향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다. 이번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특수사업 실적, 간판 수준향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강동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말·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점검반을 운영하고, 공휴일·명절 기간 집중 정비, 불법 벽보·전단 수거보상제 등을 적극 실시하여 총 362만 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관내 대형 옥외광고물 수시 안전점검 실시, 이전·폐업 등 관리 절차를 어려운 주인 없는 간판 일체 정비, 구천면로 일대 노후화된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 간

판과 거리 특성과 업소의 개성을 살린 벽면형 간판으로 교체·지원하는 사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정당현수막의 공공용 현수막 지정제시대 설치 의무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홍보 캠페인, 이·미용업소 사인불 정비 시범사업 등의 특화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자치구로 선정되게 되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3년 연속 옥외광고물 수준향상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것은 불법광고물 근절과 옥외광고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구 직원들의 노고와 협조해주신 주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우리 구민의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 금천구-국방부,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국방부 차관 면담 시행

금천구는 12월 3일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국방부 차관과 면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독산동 공군부대는 약 125,000㎡ 규모로 1940년대부터 금천구 도심 한복판에 있어 독산동 일대 지역 생활권을 오랜 기간 단절시키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금천구는 2005년부터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을 요청했고, 2008년 LH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군부대 이전이 구체적으로 검토됐으나, 세계 금융위기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됐다. 금천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지역발전 도모 및 군장병 근무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금천구 독산동 소재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천구는 그간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방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군부대 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2021년 새로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해 지난 9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금천구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타 지역으로의 군사시설 이전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해당 지자체와 금천구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천구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지자체와 부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와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합의가 무산될 경우 현 부지 내 도심형 부대 건립 및 잔여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도심형부대는 현 군부대를 압축·고밀화하고,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민-관이 함께 공존하는 대안으로써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사례로는 기존 군사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주민 편의시설 및 군사시설을 압축 배치한 동

작구 대방동 공군 항공안전단 부지 사례가 있다. 이번 논의에서 단절된 지역 생활권 회복에 따른 지역 발전, 군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군장병 복지·복무환경 개선 등 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에 대한 두 기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두 기관 간 TF를 구성해 상호 적극 협력기로 약속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사업에 대한 큰 물꼬를 트게 됐다"라며, "빠른 시간 내 개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랑의 빵 저금통 나눔 행사' 개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랑의 빵 저금통 나눔 행사' 및 우수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월드비전이 주관한 '사랑의 빵 저금통 나눔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을 키워주고, 직접 모은 동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는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 등 56개소 어린이집의 원생 80명이 참여해 1년간 고사리 손으로 빵 저금통을 채웠다. 이날 기부되는 금액은 총 1800여 만 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의 아동 조식 지원 사업에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매회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는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월드비전, 보육 현장의 교직원, 어린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오늘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어른이 되어서도 기부와 봉사의 기쁨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가까운 톱'으로 청소년들과 소통

서대문구는 구청장과 청소년참여 위원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인 '가까운 톱'이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지민 위원(가재울중3)과 지윤서 위원(가재울중3)이 '내 가방 속에 무엇이(왓츠 인 마이 백)' 게임과 '균형(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명함, 빗, 수첩 등을, 청소년위원들은 학습지, 사물함열쇠, 머리끈 등을 내놓고 용도를 설명하며 서로의 일상을 이해했다. 또한 만약 가능하다 한다면 '부자로 태어나는 것'과 '똑똑하게 태어나는 것' 중에서, 그리고 '과거로 가는 것'과 '미래로 가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나눴다. 이어 박채윤 부위원장(연북중3)의 사회로 구청장과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소년 위원들은 구청장의 업무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문 구청장은 이를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의 특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한 사람이나 단체가 어려운 한 가정과 결연해 장기간 지원하는 '서대문구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소개했다. 문 구청장은 영화 '원더러리스트'에 나오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란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한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학업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청소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 7기(위원장 손지연, 박준성)를 맞았다.

지난 3월 공개 모집 후 4월에 3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번 구청장과 '가까운 톱'을 끝으로 한 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지영 위원(가재울중3)은 "정책 제안과 작성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분과장으로서 팀원들 간 의견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 능력도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정원 위원(인창고 3)은 "내 주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정책 제안서를 쓰는 것이 보람있었다"며 "정책을 실현시키고 싶은 청소년,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번 7기 위원회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청소년 문화권리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총 5개 사업을 2022년 구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8기 위원은 내년 초에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조상순/기자

관악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노력을 기록한 관악구 코로나19 백서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한 적은 있지만,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준비하기 시작한 2021년 11월까지 2년간의 기록을 모두 담아낸 백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코로나19 개요와 대응체계 ▲코로나19 대응 세부일지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대책 ▲코로나19에 함께 맞선 영웅들의 생생한 이야기 총 4장으로 백서를 구성해 그간의 대응노력을 세세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선별진료소부터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 재택치료로 구분되는 의료대책과 방역수칙 점검·홍보 등 방역대책, 전방위적 민생경제 지원, 각종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및 긴급복지, 일자리 발굴 등 재난지원대책을 다룬 라인 방식으로 서술했다. 구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기능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상황대책보고회를 열어 지역의 방역상황과 확진자 관리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선별검사 진행, 현장 방역 및 방문조사, CCTV 분석, 역학조사관 조사, 자가격리자 분류 및 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2차, 3차 추가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원,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단속도 철저히 진행하며 생활 중심의 일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의 선도적인 방역 체계와 시스템은 세계적인 방송사들인 영국 공영방송 BBC나 프랑스 ARTE에서 성공사례로 다룬 정도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구정역량을 총동원한 행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백서를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관악구의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모델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백서 발간으로 그간의 노력을 정리해보고 훗날 유사 재난 발생 시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 C

## capital area

### 수도권 I

4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수원시,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해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가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권장 감축률을 10년 연속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10주년을 기념해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해 10년 연속 목표를 달성한 37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비대면으로 보고회에 참여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공로패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연속 달성기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했다.

37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를 포함해 9곳이다.

수원시는 공공건물 109개소, 차량 352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8.7%(환경부 감축 목표 4%)를 시작으로 2012년 27.4%(8%), 2013년 27.4%(12%), 2014년 32.8%(16%), 2015년 35.6%(20%), 2016년 28.3%(22%), 2017년 39%(24%), 2018년 37.6%(26%), 2019년 39.1%(28%), 2020년 46.5%(30%)를 감축했다.

2021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7.3%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공공청사에 LED 조명, 태양광발전시설, 그린 커튼,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친환경 차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또 실내 냉난방 온도 준수, 대기 전력 차단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했다.

청사를 새로 건립할 때는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지속해서 늘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주관하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2011년 시작됐다.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병원 등 전국 7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공공부문에 소유·임차해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매년 감축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는 2011년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한 후 자발적으로 도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2022년 새해 소원은?" 에버랜드, SNS이벤트 진행

◇ 오는 14일까지 SNS에서 '2022 뉴이어 위시' 댓글 이벤트 실시

- 고객들과 함께 올해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 나눠

- 주요 사연 LED 대형 스크린 및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시 소개

- 2022년 의미 담아 댓글 참가자 중 42명(20+22) 선물 증정

◇ 연말연시 선물 고민 해결! '크리스마스 럭키박스' 온·오프 판매

- 캐릭터 상품 7종 구성... 갤럭시Z폴딩3, 탬S7 등 스페셜 선물도

◇ 골든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푸드 마켓 등

'감사·희망' 테마 겨울 콘텐츠 선보여

□ 감사와 희망의 겨울 시즌을 선보이고 있는 에버랜드가 고객들의 새해 소원을 들어보는 '2022 뉴이어 위시(New Year Wishes)'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4일까지 에버랜드 SNS에서 진행되는 2022 뉴이어 위시 이벤트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며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이벤트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에버랜드 SNS에서 댓글 응모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고객들의 새해 소원이 담긴 댓글 중 주요 사연을 선정해 포시즌스가든 LED 대형 스크린에 소개하고, 올해 마지막 날 자정에 진행되는 2022년 카운트다운 행사와 SNS 채널에서도 스페셜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의 의미를 담아 댓글 참여자 중 42명(20+22)을 추첨해 에버랜드 이용권, 모바일 기프트카드, 음료 기프트카드 등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

□ 또한 에버랜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고민 중인 고객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크리스마스 럭키박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럭키박스에는 동물 인형, 망토, 헤어밴드 등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 상품 7종이 들어있는데, 정상이 대비 약 40% 할인된 4만9천원에 구

입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럭키박스에는 캐릭터 상품 외에도 갤럭시Z폴딩3, 갤럭시 탬S7, 갤럭시워치4 등 스페셜 선물이 무작위로 들어 있어 행운 가득한 선물 개봉의 재미를 더했다.

크리스마스 럭키박스는 에버랜드 그랜드앰포리엄 상품점은 물론 네이버 에버랜드 스토어, G마켓, 옥션 등 온라인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0개로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 구입을 원하면 서두르는 게 좋다.

□ 한편 에버랜드는 겨울 시즌을 맞아 지난 3일부터 감사와 희망을 테마로 한 윈터 위시(Winter Wishes) 겨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에버랜드 윈터 위시에서는 환상적인 라이팅쇼가 펼쳐지는 골든일루미네이션 윈터가든부터 멀리미디에 불꽃쇼 매직인더스카이와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푸드 마켓 등 다양한 겨울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호서대 대학생과 함께 '사랑나눔 이동마트' 사업 실시



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 동아리 '약동' 학생들과 함께 진위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이동마트'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호서대학교 대학생들과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마을들을 돌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장보도록 도왔다.

김정란 민간위원장은 "사랑나눔

이동마트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며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자주 이동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진위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에 힘써주신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호서대학교 대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절기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트럭에 싣고 직접 찾아가 무료로 장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랑나눔 이동트럭' 사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 시흥시, 장애인의 삶의 질 높일 '지역사회중심 재활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6일 지역사회중심 재활활동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역주민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활동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손 마사지 등의 역량 강화 교육 수료 후 손 마사지 봉사, 나들이 등의 장애인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5회 진행됐다. 한편, 손 마사지 교육의 대면 실습을 원하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마지막 교육만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분리해 운영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활동가와 함께 장애인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 화성시 '시민정원사 활성화 방안' 토크쇼 개최



화성시는 6일 정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참여형 공원관리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활성화 방안 토크쇼'를 개최했다.

동탄호수공원 수변카페에서 진행된 토크쇼에는 서철호 화성시장과

박진수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윤치중 우리꽃식물원 연구사, 전문가가드너, 화성시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녹색생활공간인 공원의 조화류를 민·관이 공동으

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정원사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이뤄졌다.

화성시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공원의 변화를 시도한 시민정원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정원사와 지역봉사자들과 조화를 통해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2년 화성형 시민정원사 운영을 위해 동탄호수공원, 여울공원, 청계중앙공원, 동탄센트럴파크, 오음공원에 각각 전문가가드너 1명과 정원관리단 20명을 배치하고 시민정원사 18명도 정원 규모에 맞게 배치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 광명시, 탄소중립 실천 최고 영예 '대통령상' 수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노력과 성과 인정받아



광명시가 6일 문화비축기지 내 T2 공연장(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1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행사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은 친환경기술 개발과 친환경제품 생산·유통·소비·산업 및 저탄소생활실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해 온 부단한 탄소중립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지방정부 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단체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광명시는 2018년 9월 지방정부 조 직에서 생소한 기후 분야와 에너지 전환을 포괄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2020년 5월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해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시민이 쉽게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시민 협력 사업인 넷제로에너지카페 운영, 그린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등으로 탄소중립생활 실

천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더구나,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은 시민 스스로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탄소중립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 체계를 준비 온 점도 특색 있다.

지역시민을 기후에너지 감사로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다급 학교, 아파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을 추진한 점, 미래 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갖도록 기후에너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한 점, 마을의 기후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촉진하는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10·10·10 소등 캠페인, 함께 그린 쿨루프 사업, 에너지의 날 행사 등에 대해서도 크게 인정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과 기후, 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노력한 탄소중립 활동이 외부 기관에서 인정 받았다는 점에 기쁘고 함께 해준 광명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될 것"을 다짐했다.

윤용민기자

## '2021 인천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도티TV, 핫도그TV, 마이린TV 등 대한민국 탑 크리에이터 대거 출동

인천광역시 '2021 인천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IISF)'을 오는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 1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국내 최초의 1인 미디어 분야 국제 행사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와 OBS경인TV가 공동주관한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는 인천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IISF)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6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지침을 기준으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도티TV·지기TV·고효주·마이린TV·핫도그TV 등 국내 인기 크리에이터와, 준오브다사·수잔 샤키야·알파고 등 러시아·미국·일본·태국·스페인·멕시코·터키·네팔 등 현지 팬을 보유한 다양한 국가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높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11일은 행사 시작과 함께 신인 걸 그룹 버가부의 특별 공연이 이뤄지며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개막식 특별 공연으로는 여성 록밴드 톨립퀵츠의 공연과 아시아 모델협회의 국제 모델 패션쇼가 있을 예정이다.

12일 폐막식 특별 공연으로는 루비레코드의 모트, 우에린, 레인보우 노트 그리고 누리꾼에게 큰 사랑을 받는 가수 김장훈이 참여한다.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의 부스 전시와 토틸 솔루션 체험행사도 전시장 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참여사로는 AVX, 디브이네스트, 그



린촬영, 고일 등이 1인미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참여하며 인천콘텐츠코리야랩, 인천N방송, 연수구 스마트이동스튜디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 기관의 1인미디어 부스도 준비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2021 IISF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전 신청자의 경우 현장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방문이 어려운 관람객은 공식 홈페이지나 OBS ENT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사 관람이 가능하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사전 신청을 통한 관람객으로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행사 참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축제로 진행할 것이다"며 "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충남기자

## 부천시립합창단제155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부천시립합창단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55회 정기연주회 -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를 개최한다. 지휘는 폴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음악감독이자 고음악 스페셜리스트 김선이 지휘자가 맡으며, 소프라노 임소정, 카운터테너 장정권, 테너 홍민섭, 베이스 우경식이 협연한다.

2021년 부천시립합창단의 대미를 장식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종교음악을 넘어서 인류의 음악 유산으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다. 총 3부로 구성되어 그리스도의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을 다루는 이 성악 음악극은 서창, 중창, 합창 등 여러 형태의 성악으로 꾸며져 다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1부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신포니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노랫말이 이어지며 밝고 평화롭다. 수난과 속죄를 이야기하는 2부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친다. 2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할렐루야'는 웅장하고 성스러운 합창으로 압도하며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낸다. '할렐루야' 하면 익히 떠오르는 이 곡은 영국 초연 당시 극을 관

람하던 조지 2세가 몹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관객 모두가 기립한 일화가 유명하여, 오늘날에도 이 대목에서는 관객들이 기립하는 전통이 남아있다. 부활과 영생을 노래하는 3부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합창으로 힘차게 접어들며 2시간에 달하는 대작을 장엄하게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은 '메시아'에서 특히 걸작으로 평가받는 곡들을 추려 메시아 하이라이트로 선보이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관현악을 맡아 부천시립합창단과 함께 송년의 밤을 장식한다.

김선이 지휘자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은 가사가 음악보다 우위에 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사에 따라 선율, 화성, 아티클레이션, 템포, 프레이징 등 모든 것이 가사에 예속되어 있다. 가사에 따라 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선이 지휘자가 부천시립합창단 제4대 상임지휘자로 새로 취임한다는 소식과 함께, 제155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용민기자

## 경기도민 95.6%,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변화 필요"

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11월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95.6%)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추진되면 교육현장의 변화로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 강화(49.4%),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평가 변화(21.4%),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교육 방법 변화(14.5%), ▲무선인터넷 교실, 학생 개인별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11.4%)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46.6%), ▲의사소통(15.5%), ▲협력적 문제 해결(14.7%) 역량 등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적용한 수업 설계 능력(33.2%), ▲미래 사회 변화를 알고 대응하는 능력(26.1%), ▲위기 대응·문제 해결 능력(14.7%) 등을 꼽았다.

또한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90.7%)'고 응답했으며, ▲디지털 기본 소양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 4~6학년 때(각각 40.4%, 42.7%), ▲인공지능 교육

은 중학교 때(39.4%)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령에 맞는 4차 산업혁명 교육 내용 연계성 강화(42.5%), ▲교원 전문성 함양(36.9%), ▲교육 자료·콘텐츠 개발(33.6%),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운영 지원(27.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제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고교학점제 추진으로 미래 교수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교육에 힘써온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정착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과 교사 재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서별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교육청이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만 19세 이상 도내 거주 성인 남녀 1,200명에게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 응답률은 9.3%다.

조혜영기자

## 오산 장애인극단 녹두 장애인식개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공연



으로 창작된 이번 연극은, 자유를 얻고자 수 십 년 생활한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세상의 편견과 열려에 부딪치며 장애인의 시선에서는 마치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사실적으로, 때로는 해학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로 부터 많은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표적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극단 녹두는 지난 2010년 결성됐으며, 현재 25명의 장애인 단원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 공연을 펼쳐 왔다.

또한 센터는 오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3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오은숙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본인 욕구와 능력에 따른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자립 생활이 가능하므로,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에 대해 편견을 갖기 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옥희 오산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스텝들의 훌륭한 연출력이 결합된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용인시, 입 모양 보이는 '소통마스크' 추가 보급

용인시가 '소통마스크'를 추가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적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3곳에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통마스크 460장을 전달했다.

소통마스크는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이 투명 필름으로 제작돼 있다. 실제 23명의 교사들이 7주간 현장에서 사용한 결과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는 이번에 총 3000장의 소통마스크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의 영아반 및 장애아반 교사에게 추가 보급했다. 마스크는 평

택시 소재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더조은주식회사가 후원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창으로 돼 있는 소통마스크는 입 모양과 표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아이들과 교사들이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마스크 기탁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경환 더조은주식회사 사장, 정성규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기부했다"며 "마스크가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안양시 석수3동 충훈부 '온(ON)·온(溫) 마을축제' 겨울빛 이야기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 극복 희망의 메시지 되길

안양시는 만안구 석수3동 충훈부 벚꽃산책로에 성탄과 열말연시 및 이경관 조명등이 설치됐다고 6일 밝혔다.

이경관조명등은 석수3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충훈부 온(ON) & 온(溫) 마을축제'로 기획해 설치했다.

지역주민들 간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곳은 충훈 벚꽃길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털실 작품과 벚꽃모양

바람개비, 페타이어를 활용한 벤치, 털실옷을 입은 희망트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충훈 벚꽃길 초입에 설치한 털실과 조명으로 꾸며진 희망트리는 충훈벚꽃축제 기간 이외에도 석수3동을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이미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습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훈부 온앤온마을축제추진위원회 임순덕 대표는 "코로나19로 침체

된 마을주민들에게 겨울빛 축제로 활기차고 밝은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한겨울 감성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저녁 현장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열렸다.

최정부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창립 23주년 "만화웹툰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웹툰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내년 더 큰 도약 다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3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

창립기념식에는 한국만화를 이끌고 지원한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대 이사장, 만화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9년 부천시와 만화계가 힘을 모아 만화문화산업의 육성 전진기지로 출범했다.

오늘날 진흥원은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시민과 소비자가 찾는 아시아 최고 만화의 전당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진흥원은 만화작가자를 비롯하여 만화관련기업 등을 공간에 집적화해 만화클러스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100여 개실 380여 명의 입주기업 및 작가가 상주하고 있다. 더불어 2023년 준공예정인 웹툰융합센터를 더해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만화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만화발전기에 기여한 유수의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만화의 더 큰 도약을 지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대 이사장인 이두호 작가, 김동화 작



가, 조관제 작가 및 부천시 관계자, 만화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작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 유성준과장은 "부천시가 공업지역에서 문화도시로 변화하는데 만화의 힘이 컸다"며, "부천은 만화문화 도시로서 더 많은 만화산업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작업할 수 있는 웹툰융합센터 건립을 완성해 부천시와 만화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

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만화의 힘'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 '스위트홈'부터 '지옥'의 성공까지 만화가 가지는 힘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만화산업의 양지는 더욱 빛나고, 만화산업의 음지는 양지로 건너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인천서부소방서, 우리 집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

인천서부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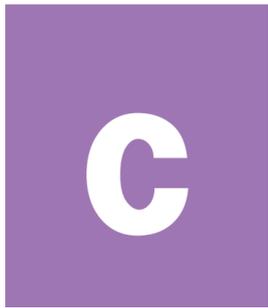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어린이·여성도 힘들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피난 설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불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입주민 모두가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충남기자



# capital area 수도권

6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광명시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

광명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그간의 주민자치회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1기 주민자치회 소감 나눔, 2기 주민자치회 위원 소개, 위촉장 전달, 결의문 낭독,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7동은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11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기존 위원의 연임 여부를 확정하고,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신규위원을 모집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 35명에 대한 최종 의결을 마쳤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 봉사자로 주민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7동은 2019년 광명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년간 분과·임원·네트워크 회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민을 위한 마을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써왔다.

윤용민기자

##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문중·고교생 등하교 안전 확보

성문중·고교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이 확보됐다.

안양시는 5일 만안구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확장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인 관계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도로가 좁아 차량교통이 힘들고 보행로도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해 있었다.

시는 이에 올해 2월 사업비 35억 7천만원을 들여 도로확장 공사에 착수, 11개월 만에 마치며 중·고교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기하게 됐다.

구간은 총 연장 158m로 공사를 통해 6m였던 폭이 10m확장됐다. 또 학교측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학교 앞 회차로가 신설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확장구간은 특색 있는 바닥 포장으로 미관을 고려한데다, 산뜻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도사린 도로를 개선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다양한 송년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과 함께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에서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송년 프로그램을 12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송년 프로그램은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강연, 공연, 체험 및 전시 등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하게 진행한다.

작가 초청 강연으로 △ 이임숙 작가의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박혜란 작가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문경수 작가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윤성에 작가의 '소비와 저축', 안정현 작가의 '엄마

도 아들은 처음이라'(진안도서관) △ 손현주 작가의 '가짜 모범생', 하연철 작가의 '박물관에서 공룡을 만나다'(송산도서관) △ 장윤희 작가의 '사춘기 부모수업'(송림이음터도서관) △ 한진희 작가의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등이 열린다.

연말 분위기를 돋우어 줄 공연으로는 △ 동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클래식 동화공연, 패널리티어 공연 해님달님(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공룡 매직쇼(진안도서관) △ 패밀리 매직쇼(삼곡도서관) △ 누가누가 진짜 산타(송산도서관) △ 과학

마술쇼(태안도서관) △ 가족 뮤지컬년 특별하나다(노을빛도서관) △ 빨간코 루돌프와 산타클로스(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그림책 원화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송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도서관별 운영 내용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참가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 인천사서원, 학부모와 소통하는 '열린'계양해링턴어린이집

### 계양해링턴어린이집 복지부'열린어린이집' 선정, '학부모와 소통' 높은 점수 받아



인천사회서비스원 계양해링턴어린이집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부모가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등 일상 참여가 가능한 시설이다.

인천사서원이 수탁 운영하는 계양해링턴은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급격히 센터, 계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물론이고 학부모 참여 자체 모니터링, 학대 예방 교육, 자조 모임 등 이용자와 소통을 이어왔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개원 몇 달 만에 열린어린이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원 때부터 두 돌 된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슬희 씨는 "언제든

지원하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볼 수 있어 신뢰가 갔다"며 "아이가 어려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다.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보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계양해링턴이 짧은 시간에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은 데는 이송희 원장과 이곳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9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뽀뽀 문지 '마을이 키우는 우리 아이'를 실천 중이다.

보육교사 박현정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내향적이라 아이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해 미안했다"며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늘 격려해주고 토닥여준

덕분에 아이들과 한결 가까워지고 보육교사인 내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곳은 다른 어린이집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매일 오후 어린이집 온라인 게시판에 그날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할 식재료와 실제 조리하는 모습, 조리한 음식 사진을 올린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한 단계 올라간다. 또 5~10월 4회에 걸쳐 학부모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의 날'을 연 것은 물론이고 상·하반기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여기에 매일 다른 주제로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학부모, 아이들, 교사가 같이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마을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계양해링턴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기에 온라인으로도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은 알고 있다.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마을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VR 콘텐츠 전시 '디지털 노벨버' 2일 폐막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 신철)는 지난 2일, VR(가상현실) 콘텐츠 전시 '디지털 노벨버'(Digital November)를 마무리했다.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BIFAN·플랫폼엘이 주관한 14일간의 이번 전시는 전화 매진을 기록하는 등 호평받았다.

전시는 방역 수칙을 엄수(하루 9타임 시간당 3명 관람 제한, 매주 월요일 휴관)했다. 네이버와 전시 현장의 메모판에는 관객들의 호평이 잇따랐다.

"눈을 돌리니 새로운 세상이 이미 있었군요"(mari\*\*\*\*\*) "기대 이상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sara\*\*\*\*)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happ\*\*\*\*\*) "눈앞에 보이는 장면 하나하나 환상적이었습니다!(bewi\*\*\*\*\*) "퀄리티 좋은 작품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dlwl\*\*\*\*\*)..."

"VR만이 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소통의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진짜 다른 영역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봐서 좋았습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잊혀진 것들,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보

니 독특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전시 작품은 영화적 상상력을 몰입감 있게 구현한 프랑스 VR영화이다. 제25회 BIFAN 초청작 '미싱 픽처스: 아벨 페라라, 버즈 오브 프레이' '미싱 픽처스: 차이밍량, 7층 빌딩' '회화의 탄생'과 국내에 처음 공개하는 'Notes on Blindness' 등 4편이다.

'미싱 픽처스: 아벨 페라라, 버즈 오브 프레이'와 '미싱 픽처스: 차이밍량, 7층 빌딩'은 화제의 VR영화 프로젝트 '미싱 픽처스' 시리즈 작품이다. '미싱 픽처스'는 감독들이 여러 이유로 제작하지 못한 미완의 작품을 VR의 형태로 구현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회화의 탄생'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발견 중 하나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쇼베 동굴을 탐험했다. 'Notes on Blindness'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 시력을 잃어버린 작고한 신학자 존 헐의 육성 일기를 담은 VR 콘텐츠다.

BIFAN은 2016년부터 국내 영화제 중 최초로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콘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해왔다. 2019년부터는 '비욘드 리얼리티' 섹션을 신설해 보다 폭넓은 작품들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노벨버'는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에서 매

년 11월 디지털 관련 프랑스 콘텐츠를 100여 개 국가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이벤트이다. BIFAN과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가상 콘텐츠 여행' 'BEYOND REALITY OVER INCHEON AIRPORT'에 이어 이번 하반기 전시까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BIFAN의 김종민 XR 큐레이터는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XR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 "좋은 작품에 공감해주는 관객들과 함께 XR 콘텐츠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뤄지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욘드 리얼리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비욘드 리얼리티'는 영화제 개최 기간을 포함한 18일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했다. '바오밥 스튜디오(VR 애니메이션계의 선두 주자) 특별전'과 'XR3'(칸·트라이베카·뉴이미지영화제 공동 기획) 전시 작품, 한국을 대표하는 김진아·이승무 감독의 신작 등 80여 편을 소개(김진아 감독의 '소요산'은 최근 제27회 제네바국제영화제 가상현실 경쟁부문에서 최우수작품상 수상)했다.

윤용민기자

# 경기도, "MZ세대의 밀레니얼과 Z세대, 여가활동 가치관 차이 뚜렷"



경기도 거주 1만 6천 가구 대상으로 2020년 조사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원자료 활용

'MZ세대'로 흔히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생)와 Z세대(1995~2005년생) 사이에서도 여가활동 가치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세대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활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내 여가활동 부문을 재분석한 '경기도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세대 구분을 출생연도 기준으로 Z세대(1995~2005년), 밀레니얼(Y)세대(1980~1994년), X세대(1964~1979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로 정리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 1,331만5,000여 명을 기준으로 ▲Z세대 12.3% ▲밀레니얼세대 21.3% ▲X세대 27.4% ▲베이비붐세대 13.2% ▲시니어세대 13.1% ▲유소년 12.6% 등의 비중이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일과 여가생활 균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4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가 2.64점으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은 반면 Z세대가 2.49점으로 가장 낮아 같은 MZ세대에서도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가만족도(10점 만점) 역시 밀레니얼 세대가 6.00점, Z세대가 5.76점으로 세대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Z세대의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 5.37점, 휴일 6.03점이고 여가비용 충분도는 5.11점 등 모두 전 세대 최저점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여가활동 목적을 보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의 즐거움'을 52.9%, 41.4%로 가장 높게 응답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 비율이 Z세대는 2.9%(최저), 밀레니얼 세대는 16.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니어 세대는 여가활동 목적으로 '건강'(36.2%)이 '개인의 즐거움'(34.1%)보다 유일하게 높은 세대 집단으로 나타났다.

평소 참여하는 여가활동 조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TV 시청과 산책·걷기 비율이 높아졌고, 저령대일수록 게임과 인터넷 검색·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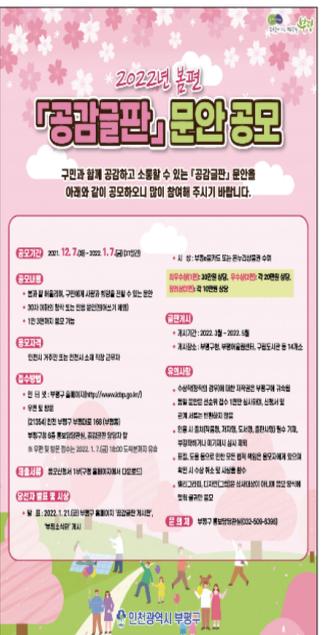
세대별 주요 시사점 분석 결과는 ▲(Z세대)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어려움, 관광 활동 불만족 ▲(밀레니얼 세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활동 추구, 여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소비 적극적 ▲(X세대) 기성세대임에도 소비 트렌드에 민감,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 ▲(베이비붐 세대) 동반자 부재와 건강 문제로 여가활동 어려움 발생 ▲(시니어 세대) 시간은 충분하지만 건강 문제로 여가를 즐기지 못함 등이다.

이에 연구원은 세대별 다양한 여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으로 ▲전 세대에서 증가하는 레포츠 수요를 경기도의 자연 자원, 접근성과 연계한 (가정)레저특화지구 육성 ▲생애주기별 참여 여건을 고려한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스포츠클럽 모델 확산 ▲점점 인구 비율이 높아질 고령층도 참여할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여가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성향이 공통적으로 있으나 여가활동 가치관은 다르게 형성됐다"며 "이들의 SNS, 신용카드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여가 형태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추진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봄편 공감글판 문안 공모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오는 2022년 1월 7일까지 '2022년 봄편 공감글판' 문안을 공모한다.

공감글판은 인천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천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짧은 글 공모전이다. 문안 공모대상은 가을과 어울리며 구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30자 이하의 글귀로, 1인당 3편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 우편 응모도 가능하다.

구는 점수 문안을 대상으로 '공감글판선정단' 심사를 거쳐 5편의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작 1편 30만 원, 우수작 2편 각 20만 원, 장려작 2편 각 10만 원 상당의 부평e음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선작은 디자인 작업을 거쳐 부평구 내 주요 시설 14곳에 게시되며, 구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도 올라 겨울 동안 주민과 만나게 된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겨울편 공감글판으로 김병수 시인의 '나무들의 약속' 중 '숲 속 나무들의 겨울 약속은 / 나 같이 눈보라를 견뎌 내는 것'이라는 글귀를 구청사와 부평이 올림센터 등에 게시했다.

김종남기자

## 세종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세종특별자치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 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 방식을 병행·추진한다.

노상 단속은 육안으로 운행자동차 매연을 확인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방식은 노상단속이 장시간 소요되고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 카메라 녹화영상으로 매연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박관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노후경유차는 우리 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 동절기 대비 현장행정 나서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6일 오후 수정구에 위치한 희망대공원과 제1공단 근린공원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통과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은 시장이 이날 찾은 옛 1공단 지역은 내년 3월 주민 커뮤니티의 중

심 생활문화 지원센터와 보행육교, 소담폭포,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을 갖춘 제1공단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트리 어드벤처, 포레스트 갤러리 등이 설치되는 희망대공원과 함께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은 시장은 현장에서 관계부서에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날이 추워지는 만큼 공원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사 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가스와 유류 등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용수 안정공급부터 계량기 통과 예방, 신속한 복구까지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세심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화재와 산불 예방 등 7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뤄진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설해·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은 시장은 7일 오후 동절기 대비 현장행정 두 번째 일정으로 금광1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과 시설물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society

사회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7

## 김해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김해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9일부터 8일까지 10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는 단속 기간 화목(떨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소나무류 팔감 보관과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강성식 산림과장은 "김해시는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옥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옥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는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군은 옥천군장애인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 16개소(공공기관 5개소, 공동주

택 8개소, 기타휴게소 3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불법 주차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지승 주민복지과장은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 근절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동약

자 보호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 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안동시는 12월 6일 ~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인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점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덕자/기자



## 삼척시, 관내 어린이집 등 45개소 특별방역 점검

삼척시가 오는 24일까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감염 취약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인식을 재강조하고자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44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등 45개소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중점으로 현장 및 시설 점검으로 진행된다.

중점점검사항은 ▲어린이집 내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인력배치 및 관리여부 ▲백신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PCR 검사 결과 확인 ▲종사자 예방수칙 준수 후 출입·입소자 외출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위생 및 방역관리 항목 등으로, 점검과 함께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규정 미숙지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현장 수범사례는 즉시 전파하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특별점검으로 연말·연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제11회 안동사투리 경연대회 비대면 개최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1회 안동사투리 경연대회가 12월 10일 오후 2시 안동문화원 대강당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사라져가는 우리 말 사투리와 안동문화를 전승·보전하며 전통적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안동사투리 경연대회는 안동사투리에 관심과 재능이 있다면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안동사투리로 만들어진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회로서 안동노래와 사투리 공연을 시작으로 13개 팀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동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는 안동사투리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번 안동사투리 경연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안동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안동사투리 경연대회 영상을 볼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문화원으로 하면 된다.

임덕자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2021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공감 통일토크 콘서트”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군위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군위고 3학년, 자문위원,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공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통일 토크 콘서트는 수능시험 이후 대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통일관 정립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한승호 교수는 “청년 통일 공감”이라는 주제로 최근 북한의 변화와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학생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사회에 대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셨다.

군위고 학생들에게 이제 청년으로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 것을 권하면서 북한의 궁금한 것들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눈높이에 맞는 대화로 통일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평화통일공감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평화통일정책자문기구로 설립됐다.

장동호기자

## 2021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유공자 도지사 포상

경상북도는 6일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대강당에서 2021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설비의 도입과 관련 기술개발, 에너지정책 개발 및 시책사업 추진 등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도민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범도민적 에너지절약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단체분야 우수기업 5개 상패, 우수시군 5개 상장, 개인 표창으로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총 25명이 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기업부문 대상은 폐열회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효율 기기 교체, 설비 최적화 등 에너지효율 개선 실천이 돋보인 풍산 안강사업장(대표 주수석)에 돌아갔다.

또 최우수상은 한남전기통신공사(대표 이승재), SK실트론(대표 장용호), 우수상은 한국에너지기술협회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주완), 금호엔지니어링(대표 이규락)이 공동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포항시가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으며 상사업비 8000만원을 받았다.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안동시와 예천군, 우수상은 문경시와 의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도지사 개인표창은 코오롱플라스틱 김선섭 수석 등 기업체 관계자 10명과 시군 공무원 5명 등 총 15명이 수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래는 에너지사회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이 중요하다”라면서, “경북도는 청정에너지와 배터리(ESS),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을 활용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봉금기자

## 겨울바다를 즐겨라! 제4회 포항 메리어스컵 서핑 챔피언십 개최

### 서핑 명소 용한해변에서 사흘간 2개 종목 12개부로 나눠 펼쳐져



포항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용한해변 일원에서 '제4회 포항 메리어스컵 서핑 챔피언십'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포항시서핑협회에서 주관해 2개 종목 12개부로 나눠

행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핑을 사랑하는 400여 명의 전국 서퍼들이 열정적으로 파도를 타며 각자의 기량을 한껏 발휘했다.

서핑은 보드 위에서 파도를 타며 속도를 겨루는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해양스포츠로, 원래는 적합한 파도가 있는 지역에서만 성행했으나 최근 슈트와 보드의 발전, 서핑 문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 다양한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다.

현재 포항에서도 용한, 월포 등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용한 서퍼비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서핑 명소로 자연파도의 질이 좋아 추운 겨울에도 서퍼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 4번째를 맞이한 서핑대회는 포항의 적합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멋진 광경을 연출하며 서퍼들의 기량을 맘껏 뽐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가 해양관광도시 포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대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국의 많은 서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노이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내년도 역대 최대 예산 기록, 경주시 곧 2조원 시대 열 것 강조

“경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 23개 시·군 중 2위로 경주시보다 인구가 1.6배 더 많은 구미시 예산안 1조 5060억원 보다 590억원 앞지를 수치다. 내년엔 편성될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경주시의 내년도 최종 예산은 사상 첫 2조원 예산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주낙영 시장이 12월 첫 간부회의에서 언급한 말이다. 6일 오전 시청 대의협력실에서 주낙영 시장 주재로 국·소·본부장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지난달 22일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565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며 첫 발언을 올렸다.

이어 “이는 경북 23개 시·군 중 포항에 이어 2위로 10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25만 2403명으로 인구 기준 경북 4위 인데도, 인구가 16만

여 명 더 많은 구미시 41만 3366명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 내년도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 시장의 이날 발언은 경주시가 사상 첫 2조원 예산시대가 확실시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주시가 최근 3년간 시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을 살펴봐도 △2018년 1조 1480억원 △2019년 1조 2750억원 △2020년 1조 4150억원 △2021년 1조 4895억원 △2022년 1조 565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무려 4170억원이 늘어 36% 증가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경주시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내년도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도

비 보조금 증가, 보통교부세 1280억원 증액 등이 주된 요인으로 적극적인 시정 추진 덕분이다”며 “경북의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국·도비,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할 상황인 가운데, 경주시의 획기적인 예산 증가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한 몸이 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지자체의 살림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17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그간 공무원들의 노력을 한껏 치켜세우며 “시민만 바라보고, 경주시의 살림살이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길기자

## 청도군의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제시

청도군의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청도군의의회는 철저한 서류감사 및 대면 질의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정책대안 제시 등 내실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청도군의 전반적인

추진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는 모든 사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성혁기자

## 달서구 다문화엄마, 건강한 학부모되기 도전! 결실 맺다!



### 달서구,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 졸업식 개최

대구 달서구는 지난 4일 이곡동 소재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엄마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는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은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엄마들을 대상 진행했다.

다문화엄마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을 직접 배우 한국의 초등학교를 이해하고 자녀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졸업식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졸업생 20여명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원준호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 교장 등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및 졸업장 전달, 우수학생 시상 등으로 1여년 간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올바른 부모역할 습득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을 개

근한 주연매 학생은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을 경험해 볼모로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를 지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10,000여명의 외국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도시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자녀 드림브리지, 다문화 가족교실, 결혼이민자 희망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니, 많은 다문화엄마들이 참여하여 학부모로서 역할이 강화되어, 자녀를 도와주고 소통할 수 있는 부모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 경북 노후항구, 관광 미항(美港)으로 거듭난다

###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3개 지구 선정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에 공모 신청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3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는 경주 가곡항(86억원), 영덕 대진1항·병곡항(110억원), 울릉 통구미항(98억원)으로 사업비 294억원 규모이다.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공모사업에 21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1884억원 중 올해까지 1260억원을 투자했다.

2019년 선정된 5개 지구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어항기반 시설(방파제, 안전시설 등) 및 차별화된 특화개발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지나해 선정된 11개 지구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선정된 5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어항 내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해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어촌뉴딜 300사업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상북도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해서 이어져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봉금기자

# 경남교육청, 탄소중립주간운영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기후 위기 시계 설치,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실천, 메타버스 활용 이벤트 등

경상남도교육청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주간'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주간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12.10.)'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경남교육청은 이 주간을 맞아 본관 1층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한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C 이상 상승하면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시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기온이 1.5°C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데, 현재 약 7년 8개월이 남아있을 뿐이다.

기후위기 시계는 경남교육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주고, 학부모 등 일반 방문객 모

두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주간 동안 학교에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교육기관은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등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한다. 이메일 한 통은 약 4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장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도 증

가하게 된다. 학생들은 메타버스로 구현한 경남교육청 환경교육박람회를 관람하고, '지구를 구하라'라는 임무를 완수하면 푸짐한 상품도 받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올 한해 경남교육청은 생태환경교육의 대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 기후천사단, 기후위기 대응교육 실천교사단, 학부모 그린멘토와 함께 기후행동 확산, 친환경 실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탄소중립 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경남교육청 박종환 기후환경교육 추진단장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로 위기의식을 갖고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학교와 교육기관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다이어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area  
영남 II

문화매일 9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걸였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연말까지 고액체납자 중점 관리 목표액 달성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 팔걸을 걸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

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있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최광용/기자

## 거창군, '제37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개최



방심할 틈 없는 속시모 발차기 대결, 백절불굴의 태권도 정신

거창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거창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제37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태권도협회(한규학)가 주최하고 거창군태권도협회(회장 손권모)의 주관, 거창군 등이 후원했으며, 경상남도과 거창군 관내 초·중등부 태권도 선수와 관계자 450여 명이 참가해서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또한, 3일과 4일 이틀간 초·중등부 각 체급별 겨루기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공인품새 4개부류 나뉜 토너먼트 방식 개인전과 컷오프 방식 단체전의 품새 경기가 뜨거워 열기 속에 성황리에 펼쳐졌다.

특히, 4일 개최된 개회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김종두 군의회의장, 박

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군의원, 경남도 및 각 시군 협회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으며,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문장을 대신하여 구인모 군수에게 명예 단장이 수여했고, 이외에도 표창패 및 장학증서 수여, 단체전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힐링과 여유가 머무는 고장 거창군을 방문해주신 도내 태권도 선수단 및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평소 갈고닦은 실력으로 겨루고, 최근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향노화힐링랜드와 Y자형 출렁다리도 방문하셔서 거창의 매력을 한껏 느껴 보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 창원시,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민군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창원시는 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방위·항만·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 첨단기술 실증테스트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류효상 사령관, 창원산업진흥원 백정환 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 구영모 본부장, 트라이젠(주) 이영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그린뉴딜 첨단기술 실증테스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군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그린뉴딜 첨단기술 실증테스트 협력사업이란 해군이 보유한 유휴자원

(공간, 장비 등)을 민간기업, 연구기관에 공개하여 활용률을 높이고 민간은 시험인증과 관련한 비용(시간, 자본 등)을 절감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방위산업, 항만물류, 수소모빌리티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증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안전과 기술보안의 공간이 필요하나 적합한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군진해기지사령부는 부대의 유휴공간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테스트필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고 해군은 IOT, AI,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기지관리의 첨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영민/기자

## 제2기 소방안전관리자 특별교육 과정 실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2월 3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실제 화재를 경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영복 소방안전관리자(통영 - 대우협동빌라)는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

육교육대상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64명이며 주요 교육과정은 체험중심의 화재진압, 소방시설사용법, 지하 연기탈출, 응급처치, 완강기구구조대 등의 사용 등으로 실제 건물 화재 시 초기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이론과 체험, 시설작동관리, 반복 숙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영복 소방안전관리자(통영 - 대우협동빌라)는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

물 내 소방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과정으로 사용법의 숙지 및 피난계획의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교육 운영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초기화재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지속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출력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광남/대기자

##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웹툰작가 닥터베르, 이대양 작가와의 만남 개최

사천에 육아에 지치고 힘든 초보 아빠·엄마들에게는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사천시어린이도서관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학박사이며 웹툰작가인 닥터베르 이대양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진다.

이대양 작가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박사 출신으로, 공학박사 아빠와 산부인과 의사인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풀어낸 네이버 인기 웹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저자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전에 필요한 세 가지'라는 주제로 웹툰작가가 되기까지, 웹툰 만드는 과정과 웹툰을 집필하는 동안 여러 경험 등을 들려준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에게는 도전과 학부모들에게는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공감대 등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12월 7일부터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 학교 4학년 이상 사천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도서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웹툰 작가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시작할 시기에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Sachein 사천시어린이도서관

닥터베르 이대양 웹툰작가와의 만남

일시 2021.12.18(토) 10시  
장소 1층 유아자료실  
참여대상 초등 4학년 이상 (사전시민 30명)  
신청기간 2021.12.7(화) - 마감시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최광용/기자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장흥군 유지면, '하반기 청렴 구호 공모전' 실시

장흥군 유지면은 지난 11월 30일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유치면 하반기 청렴 구호 공모전'을 실시했다. 유치면 직원들은 각자의 청렴에 대한 비전을 담긴 10개의 구호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자체 투표를 거쳐 우수상 1작, 참여상 2작이 선정됐다.

'친절(청렴)은 되돌이표, 부패는 마침표'가 우수상에 올랐으며, '육심·질투는 비위도 청렴만은 비우지 마세요', '깨끗한 유치, 청렴 실천으로'라는 구호가 그 뒤를 이었다. 선정된 구호는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직원회의 시 부착하거나, 홍보물품 등 제작에 활용해 청렴 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이다.

문수연 유지면장은 "우리면의 청렴 마인드 제고에 군의 청렴도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내 직원 소통의 장으로 '도란도란 까페'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하면 깨끗한 유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 담양군,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톡톡' 추진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찾아가는 거리상담 '톡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톡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을 앓거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돕기 위해 직접 거리, 학교 등으로 찾아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외에도 상담복지센터 홍보와 캠페인 놀이, 우울, 불안, 스마트폰 중독 등 자가 체크 검사,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손소독제 배포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들로 구성돼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센터에서는 자체적인 거리상담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내 여러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혼자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 연계망 또한 확고히 다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N꿈드림'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홍근/기자

## 전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우수기관'

### 전국 지자체 평가서 행안부장관 표창·특별교부세 3억 확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여름철 태풍·호우 대책 추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여름철 재난 사전 대비 실태점검 결과를 비롯해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던 대책 기간 중 발생한 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실적을 종합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통한 신속한 복구, 도민 인명 피해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피해예방 대책 추진 등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인 '우수기관'을 차지했다.

올 여름 전남도는 도지사를 비롯

한 간부들이 지난 7월 수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수차례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정부는 통상 30일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결정을 13일 만에 마쳤고, 도내 3개 시군과 4개 읍면에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전남지역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권에 들었던 당시, 관계부서와 협업해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등 도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꼼꼼한 대

비책도 높게 평가받았다. 전남도는 ▲시군 공무원 대상 방재교육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태풍과 호우 대비 현장 점검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국민행동요령 홍보 ▲코로나19 집중시설 피해예방 조치 등 다양한 사전 대응 활동을 펼쳤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에 협조한 도민과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고,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도내 재난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해대책도 철저히 추진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정책 제안의 장 마련

### 아동의회 4개 긴급문제 정책 선언, 청소년의회 2개 안건 의결



광주광역시는 4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초대 아동의회(14명) 정책선언식과 제5대 청소년의회(23명)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의회가 함

께 열렸던 것이 올해부터는 제5대 청소년의회와 초대 아동의회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초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서는 아동의원들이 결성한 총 4개의 긴급 문제 해결단별 정책을 선언했다.

내용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남녀, 나이 차별 금지(교육제작소) ▲어린이 권리 존중(아름다운지구) ▲놀이터 쓰레기통 설치(하이로) ▲교통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앞 주정차 단속(안전지킴이당)이다.

김덕윤/기자

## 강진군, 강진푸소(FUSO)협동조합 탄생

강진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푸소체험연구회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11월 30일 열렸다.

행사는 푸소체험연구회 회원, 강진군 및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관계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선출, 정관 및 사업계획 확정,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푸소체험연구회는 농가민박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이 결합된 강진군의 대표 생활 관광상품인 '푸소(FUSO)' 운영자로 구성된 단체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친절한 고객 응대, 뛰어난 음식서비스 등으로 남도 답사1번지 강진 관광을 알리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푸소'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외국인 푸소체험', '학생 대상 푸소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형태의 조직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군과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한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을 차근차근 진행했으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푸소체험연구회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강진푸소(FUSO)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특히, 87명이라는 많은 수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강진푸소(FUSO)협동조합은 전남에서 보기드문 사례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협

의를 거친 만큼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금단 이사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강진군, 그리고 푸소체험연구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강진푸소(FUSO)협동조합 창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한 단계 도약한 만큼 조합과 조합원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푸소(FUSO)협동조합 창립을 통해 푸소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면서 "군 고유의 생활관광상품인 푸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더욱 발전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장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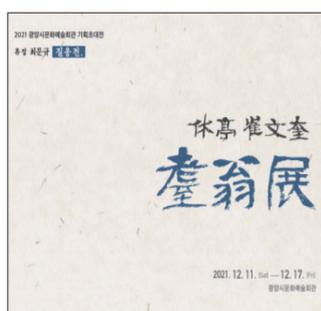
## 광양시, 휴정 최문규 서예가 '질옹전' 선보여

광양시는 오는 11일부터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휴정 최문규 작가의 '질옹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서예미술예총 명인으로 지정된 휴정의 자작시를 포함해 45여 점의 서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팔순을 맞는 작가의 다양한 서체와 어우러진 한시는 관람객의 마음을 위안하기 충분하며, 품격을 높여주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석/기자



## 202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기탁행렬 ...지역인재양성 밑거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평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주는 기부 행렬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함평군은 6일 "민간 기부자들의 잇따른 기금 기탁으로 지역인재 양성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으로 ▲주포한옥마을민박협의회 ▲함평군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 ▲농업회사법인 함평에푸드 ▲함평을 대흥식당(대표 천재홍)에서 각 100만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에 참여한 주포한옥마을민박협의회는 2017년부터 매년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함평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도 2019년부터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해왔다.

정미경 ㈜농업회사법인 함평에푸드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평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민과 여러 단체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2021년 연말도 훈훈하다"면서 "인재양성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인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함평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모금한 기부금은 1억1천만 원에 이른다.

조기석/기자

## 곡성군, 버려질 나무 활용해 세외수입 2천만원 거둬

곡성군이 제거 대상 나무들을 매각해 2천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곡성군 산림과에 한 주민의 민원이 접수됐다. 고달면 뇌죽리~ 고달리 구간 섬진강 제방 재해 복구사업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주변 수목이 정비되고 있으니 제거보다 활용 방안을 찾아 달라는 요구였다. 좋은 의견이었지만 산림과 측은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역 내 산림경영인협회, 숲속의전남 협의회, 조경수협회와 함께 수목활용 방안을 찾고자 의견을 나눴고, 나무를 이식해서 활용

하고자 하는 수요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50여 그루의 수목을 매각했고, 약 2천만원 상당의 세외수입도 올렸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얻은 결과였다.

군 관계자는 "소통하고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던 사례인 것 같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2021 행복나눔 김장김치' 올해도 이어져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후원해 겨울을 준비하는 125개 사회복지시설에 파스함을 전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박수성 회장이 여수시를 방문해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되며, 지역사회 복지 기관들과의 자원연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했다.

물품배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진남체육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설의 유형과 수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 55개소는 완제품(330박스)으로 지원하고, 절밀배추와 양념을 희망하는 시설 70개소는 자체 담그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효율성을 더했다. 박수성 협의회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 분들이 가장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거라 생각한다"며 "위드 코로나시대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으니 조그만 더 버티고 힘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 각계각층의 변함없는 후원과 지지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며 "매해 지속적인 시설 후원을 아끼지 않는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수발전에 함께 동참하는 협의회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 남원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지역현안-재난안전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당동 소화전 정비사업 8억원, 과립 소화전 정비사업 5억원, 송동 신촌제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과 전라북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암공원 조성사업 11억원, 주천 호경 지방도 절계지 정비사업 13억원이다.

당동·과립 소화전은 제방, 호안, 교량 등 하천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재해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송동 신촌제 배수로 정비사업은 송동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80ha 농경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노

후된 시설물이 파손되고 유실되어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있어, 배수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된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남원시에서 전라북도 건의의 사업으로 노후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광한루원, 남원관광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암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천 호경 지방도 절계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절계지가 무너져 내린 곳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들을 하나하나 건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전라북도교육감배 축구·태권도대회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성공적 개최



전라북도교육감배 축구대회와 태권도대회가 전라북도교육청과 종목단체의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완산체련공원, 김제시민운동장,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1 전라북도교육감배 축구대회와 12월 3~5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1회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

수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전라북도교육감배 축구대회는 전문선수부(1부)와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부(2부)로 분리하고, 대회 참가 자격 조건(코로나 검사 필수)부터 대회장 입장 방역관리까지 철저하게 운영했다.

참가 수가 적은 초등부 2부 경기는 리그제와 리그제를 병행·운영하여 경기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일반학생들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전문선수부(1부)는 초등부 우승 전북현대U12, 준우승 이리동초, 3위 이리동산초, 전북유나이티드 U12, 중등부 우승 금산중(전북현대U15), 준우승 신태인축구센터, 3위 FC해성, 김제FC U15, 고등부 우승 전주영성고, 준우승 전주공업고, 3위 이리고, 군산제일고가 차지했다.

스포츠클럽부(2부)는 남초부 우승 전주비전스포츠클럽, 준우승 정읍스포츠클럽, 3위 익산원스포츠클럽과 안산FC, 여초부 우승 전주시여학생축구교실, 준우승 익산시여학생축구

교실, 3위 군산시여학생축구교실과 완주군여학생축구교실이 차지했다. 스포츠클럽부(2부) 중등부 우승은 전주화정중학교, 준우승은 군산금강중학교, 3위는 전주화정중학교과 전주온고을중학교가 차지했다.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 역시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선수들에 한해 대회가 진행되었고, 참가선수와 관계자 이외 대회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운영한 결과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위축된 신체활동 속에서도 전라북도교육감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한 코로나 방역 지침 아래 전라북도교육감배 대회 등 신체활동 장려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11

## 완주군, 감염병 관리 국무총리 표창

완주군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2021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해마다 감염병 관련 업무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국 3곳(광역자치체 1, 기초자치체 2)을 지정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제외한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율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 12세 HPV예방접종률 ▲국가발전기여도 ▲주민만족도 등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올해(1~11월)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100%,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신고 지연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외에도 대상포진, 만 14~64세 독감 예방접종 등 완주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도 지속해 왔다.

완주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완주군이 코로나19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 감염병 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감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전북은행,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warm) 키트' 100박스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3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방한 키트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임재원 본점 부행장, 이훈주 정읍시청 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날 물품 전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부 문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온정을 담은 방한 키트(담요, 베틀, 수면 바지, 수면양말 4족)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100세대에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다.

임재원 부행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밀착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전북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년 이웃돕기 캠페인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하은기자

## 전주시, 미얀마 유학생과 함께하는 전주 전통체험

시, 4일 미얀마 유학생 20명과 함께 전주 전통문화 체험하는 '전주동행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자국의 민주화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해 잠시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는 4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미얀마 유학생 20명과 함께 전주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전주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내년 초 졸업 예정인 에도 자국 상황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얀마 유학생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전통체험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미얀마 유학생들은 △선비들의 의례를 배우는 '사상견례' △전통 국궁 체험인 '향사례' △화가투·고누놀이·장명루 등 전통놀이 등을 체험했다. 또 전통한복을 입고 전주향교 등 한옥마을 명소를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전주만의 문화를 만끽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미얀마 유학생 고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열어온 시는 여름방학



기간 중 방역일자리 등 근로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북은행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의 지정기탁에 따라 지난 9월에는 83명의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미얀마 유학생들의 금전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자국 상황이 어려운 미얀마 유학생

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시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유학생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전주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철원군, 신철원전통시장 키즈카페 갈리말리 노리터 12월 개장

철원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철원전통시장내 고객편의시설인 키즈카페(갈리말리 노리터)와 고객지원센터를 12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철원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 사업 및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장터촌 만들기 사업으로 고객편의시설 키즈카페(갈리말리 노리터)를 국비 10억, 지방비 9억을 들여 구 철원군수 관사 부지에 11월 29일 준공하였으며, 고객지원센터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국비 6억, 지방비 3억으로 2020년 준공하였다.

전통시장 키즈카페(갈리말리 노리터)는 다양한 놀이체험실(모션터치, 드로잉 아쿠아, 걸리버 피아노, 볼볼장, 꼬마자동차, 플레이집, 트램플린, 갈리말리 키즈마켓, 클라이밍, 정글집)에 수영장, 파티방 등의 공간도 마련하였으며 또한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이용객들의 휴게공간 및 시장상인들의 교육과 행사를 위한 다목적 회의실로 운영중에 있다.

키즈카페 갈리말리 노리터의 이용대상은 만2세부터 만12세미만 어린이로 운영시간은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3개 타임으로 나누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과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휴게공간 운영으로 전통시장 상권기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이세나/기자

### 양양문화재단, 2022년 양양 해맞이축제 미개최 결정

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은 매년 개최하였던 양양해맞이축제를 2022년에는 미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해맞이축제를 준비하기로 검토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미개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올해와 같이 매년 새해 첫날 동해신묘(東海神廟)에서 진행되는 제례 봉행은 축소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신묘는 국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고려시대부터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며, 2000년 강원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양양문화재단 김진하 이사장은 "지역 관광 및 경제와 연계되는 해맞이 축제의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최 여부를 확정 짓기보다는 전국의 감염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음성군, 2021년 대한민국 범죄예방 최우수, 행안부장관상 수상

### 여성 안심길 및 안심지킴이집 조성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탁월

음성군이 3일 서울 중앙일보 홀에서 개최된 2021년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해 전국의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추진 우수사례를 공모해 전국에서 240여 건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 후 음성군이 도내 유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군은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민·관·경이 협업한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환경조성 사업은 여성안심길 및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조성해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구축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여성안심길 80개소와 여성안심지킴이집 26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해 군청 통합관제센터와 112경찰 상황실과 연계돼 위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긴급구조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는 로고젝터와 위급 상황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한 안심지킴이집 설치로 늦은 밤 보행 시 주민 안전을 도모했다.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민참여단과 경찰 등이 함께 범죄 취약지역을 사전모니터링 했고, 주민 중심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사업장소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가

전 문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현재 여성친화도시인 음성군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천안시 그룹형 공동육아 모임, '위드 품앗이' 개최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4일 그룹형 공동육아 모임인 '자녀돌봄 품앗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동육아 위드 품앗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24가정 88명이 참여했다.

먼저 품앗이 동아리 우행시(우쿨렐레와 함께하는 시간들)의 우쿨렐레

연주와 2021년 가족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마루아이 품앗이 리더의 수기발표가 있었다. 이어 가족프로그램으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아이싱쿠키 만들기, 공동육아 메시지카드 공유, 활동소감 나눔, 인터뷰 순으로 진행했으며 주점점사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대면하지 못했던 품앗이 가족들은 메시지 카드

나무를 함께 꾸미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올해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전체 모임을 통해 가족돌봄 품앗이의 소속감을 다지며, 마을형 공동육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허태정 시장, 계족산에서 토요일산책 가져

### 4일, 대덕구 주민자치회 임원 30여 명과 숲길 걸으며 시정 공유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오전 대덕구 계족산 일원에서 대덕구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주요 시정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일산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허 시장과 대덕구 주

민자치회 임원 30여명이 함께 계족산 황투길 구간을 산책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허 시장은 "여량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민자치회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며, "주민자치회

로 전환한지 2년이 지난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허 시장은 "2022년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 개최는 세계 여러 지방정부와 인권, 경제발전, 문화, 미래기술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대전이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세계 여러 나라에 민주주의 모범사업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토요일산책에 참여한 대덕구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마을단위 주민자치가 조기에 자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덕구 주민들이 어는 곳보다 적극적이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원호/기자

## 옥천군, 청성면 인구유입 통한 정주여건 개선 본격화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개발 규제 근 나후면 청성면에 주거플랫폼 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본격화한다.

옥천군은 6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재중 옥천군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2022~2024년 3년간 총사업비 92억2천8백만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131-1 일원(6,152㎡)에 주거공급과 생활SOC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청성초등학교 전학생, 학부모 등 교육이주자와 인

군 2.8km 떨어져 있는 청산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15호)이 건립되며, 복지회관, 주차장, 친환경숲속놀이터 등 생활 SOC 공급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인구소멸 위기 속에 청성면 지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청성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이 이번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추진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주민과 출향인, 동문회에서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고자 십시일반으로 기금모금에 300여명이 동참하여 7천8백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금으로 전교생장학금 지급, 교육이주 주택 3채 확보, 교육이주자에 주택수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며 이번 사업 선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옥천군 김재중 군수는 "옥천군 청성면은 지난 41년간 대청호 개발규제로 인한 낙후피해 지역이었다. 지역 주민, 출향인들, 각 기관들의 협조가 사업 선정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충청북도, LH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딛고 청성면 지역이 지역공동체회복과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최승준 정선군수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최승준 정선군수는 3일 정선군의회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2년도에는 절체된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면서 미래 비전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기의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농가의 소득원을 다각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산업은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찾고 싶은 관광 정선으로 변모시키고, 지역경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편리성을 높이고, 로컬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준 군수는 민선7기를 되돌아보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 문제, 폐광지역의 생존이 달린 「폐투법」은 시호 만료 문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등 7기 군정은 출범 직후부터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주민들이 합심하여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한시적이지만 우리 군(郡)이 가리왕산 곤돌라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고, 2025년 시호 만료를 앞둔 「폐투법」은 10년 재연장을 넘어 사실상의 시호 폐지 등을 담은 「폐투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국도의 동서 6축을 완성하는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중 영월~정선~삼척 구간 또한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 정암사 수마노담이 세 번의 도전 끝에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는 등 지역과 종파를 초월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은 잘 관리하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있으며, 위축되었던 군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군민 재난 기본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버스 완전 공영제와 정선군립병원은 새로운 교통·의료 복지 모델로 공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은 각종 사고 및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등의 노력이 우리 군이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4년부터 8년 연속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이 도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는 살기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정선사과 명품화, 10대 주력 품목을 중점 육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실 운영,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미래농업 육성, 농산물 마케팅 사업 활성화와 유통망 다변화, 화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 지원센터」, 농업인 수당과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바꾸어나가 북평면과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무리하고, 남면과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동읍·북평면 영농 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가는 복지정책으로 행복 정선을 실현하기위하여 전국 교통복지 모델인「버스공영제」의 완전한 안착, 정선군립병원을 인공신장실을 개설 및 병동을 확장, 7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확대, 희망드림 행복백래방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더욱 촘촘하게 설계하고,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 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폐광지역 청소년 징검다리 스킨,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특화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은 한 번 더 찾고 싶은 웰니스 관광 도시로 변모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명상과 치유, 힐링 중심의 정선형 웰니스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가리왕산 곤돌라는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화암관광지 시설개선,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 천년의 숲 조성, 주례마을 어울 연못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체험 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함백산 운탄고도, 북평 항공계곡 숲길은 전국적인 걷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은 3대 아리랑 도시와 협력하여 K-컬처(Culture)를 대표하는 문화로 발돋움시키고, 뮤지컬 '아리 아리리'와 '정선 풍류'는 정선을 방문하면 꼭 관람해야만 하는 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보 제332호인 정암사 수마노담을 비롯하여 거칠현 유적공원 조성, 선평 삼굴놀이, 남평 토방 집 짓기 등 우수한 지역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민속문화를 계승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영월~정선~삼척 구간이 고속도로 건설, 정선 - 평창 간 KTX 철도교량망 구축사업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정선에서 임계를 잇는 국도 42호선 도로 개선과 정선 남면 간 국도 59호선 도로 개량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선 3교를 조기 개통, 아라리교 신축사업 본격 추진, 사북 ~ 직전 간 도로 개설사업 완전 개통, 신동읍 고성 터널개설 사업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읍 소재지 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고한·사북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정비하고, 고한읍, 사북읍 도시재생사업과 신동읍 새뜰마을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남면 철도아파트는 매입·철거, 정선읍, 사북읍, 북평면 공공아파트 건립사업 조기 착공, 남면, 여량면, 임계면에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주택 건립 준비 등 질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민의 문화체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 정선골프연습장 및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 신동공설운동장 기능개선, 민동산 스포츠센터 신축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을 대폭 개량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수질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3차 재난기분소득을 연말부터 지급하고, 정선아리랑산품권 유통을 촉진 시켜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환경정비, 중소점포 시설개선 지원, 경영·마케팅 지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전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도 확대하고, 빛의 도시 조성, 야생화마을 조성, 광차 체험시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여 폐광지역 경제활력 높일 예정이다.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IBS 예미랩 기초과학단지 조성, 함백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거점 등 로컬 기반의 산업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781억 원 보다 8.4% 증가한 5,185억 원으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 휴·폐장이 길게 이어지면서 군 자체 세수(稅收)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초부터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하여 피력하는 등 노력한 결과 정부 지원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603억 원(31%)이 증가한 2,526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혜영/기자

## 달서구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명예구민증' 수상대상자 선정



대구 달서구는 5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3명, '명예구민증'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매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노력해 온 모범구민을 발굴해 그 공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한다.

올해 수상 대상자로 지역경제·사회발전 부문 양중학씨(74세, 前달서구시청사유치법무민추진위원장), 사회봉사 부문 최영순씨(64세, 대한적십자사 대구달서구지구협의회회장), 교육·예술 등 진흥 부문 최경애씨(60세, 대구달서구체육회부회장)를 선정했다.

또한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대상자로 신홍식씨(67세, (사)아트빌리지 대표이사), 비짓다 완사씨(38세, 대구스리랑카사원 대표), 다오 반 쌍씨(26세, 계명대학교 교환학생)를 선정했다.

지역경제·사회발전 부문 양중학씨는 前달서구 시청사유치법무민추진위원장으로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의 중심, 최고의 접근성, 부지매입비가 없는 경제성이 뛰어난 최적지인 옛두류정수장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해 유치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

구민들의 단결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시민결의 퍼레이드 및 축구대회, 한마음 한뜻 성화봉송 등에 적극 참여해 2019년 12월 22일 유치를 성공하는 데 공헌했다. 또한, 달서구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사회봉사·효행·희생정신 부문 최영순씨는 대한적십자사 대구달서구지구협의회 회장, 장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 무료급식, 밀란찬 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다문화 가정 한국

음식 알리기, 화재 및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구호활동 외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교육·예술 등 진흥 부문 최경애씨는 달서구체육회 부회장으로 달서구청 여성축구단 단장, 대구시요가회 회장을 역임하며 달서하프 마라톤 대회, 달서구청장기대회 및 종목별 협회장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했으며,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학교 및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명예구민증 신홍식씨는 1998년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층 가정에 정기적으로 백미를 후원하면서 해마다 5포씩 늘어 지금은 매달 85가정에 백미를 직접 전달하거나 안부를 챙기는 '찾아가는 쌀 배달 아저씨' 활동을 이어오면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공간 및 전시회를 지원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비짓다 완사씨(스리랑카)는 대구스리랑카사원 대표, 대구마하이주민센터 고문, 주한스리랑카불교 총괄책임자로 성서공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상호협력에 관한 상담활동에 헌신했고, 이주민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범죄예방 활동 및 출입국정책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했다.

다오 반 쌍씨(베트남)는 계명대학교 베트남 교환학생으로 DGB대학생봉사단, 다문화멘토링 봉사단, 달서 재난안전봉사단 등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다문화 아동의 학습 및 일상생활 멘토링,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달서구 개청 다음해인 1989년 처음 시행됐으며, 그동안 92명의 주인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구민상 및 명예구민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오는 12월 22일 개최하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수상 대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달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2021 한국인터넷기자상 지방의정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2021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 및 군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크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교섭단체 정례브리핑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정에 대해 단순히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건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기도의 효율적 정책과 도민의 민생 전반에 걸친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는 본상(보도 부문) 전현수 기자, 특별상 윌리엄 문(문기성) 기자, 참언론상 김여준 편집장(보도) 발행인, 우수의정상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지방의정상 홍진아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행정상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 노동존중사회상 박해철 위



원장, 평화통일상 이창복 삼일대표의장 등이 함께 수상했다.

정윤경 의원은 "훌륭한 분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겸허히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군포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소통

하면서 성실하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립 19주년을 맞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002년 6월, 미국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국민대회 등 현정취재에 나선 인터넷기자들의 취재권리 확보와 기자실 개혁 등 언론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2002년 창립된 이래 공익언론 활동을 수행하는 현업인터넷기자단체이다.

조혜영/기자

## 광진구, 지자체 유일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광진구가 3일 마포구 중앙일보홀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종합우수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2016년부터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을 위해 비전과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광진구는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치단체 유일하게 공공기관·사회단체·민간기업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우수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관내 범죄현황 진단 학술연구용역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지역별 맞춤형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여성 및 1인가구 대상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는 2019년 관내 범죄현황 진단 학술연구용역을 토대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효과적 범죄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진구는 서울시 타구에 비해 아파트 비율이 낮고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또한 관내 대학가 주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건대 맞의 거리·양꼬치 거리 등 상업시설 주변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곡3동 '모듬지기 안전마을' ▲군자동 '빛담길' 조성 ▲자양4동 내·외국인 '따로 또 같이' ▲화양동 '1인가구 안심 SOS존' 구축 등 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셉테드(CEPTED) 사업에서 탈피한 범죄예방 사업의 우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셉테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환경을 정비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기법이다.

강성원/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13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증평군, '탄소중립 생활실천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증평군은 6일 서울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1 친환경기술진흥 및 소비 촉진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은 친환경기술, 제품, 소비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남다른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단체, 기관 등을 포상하는 상으로 군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추진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녹색계획, 교육, 캠페인, 분야별 녹색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제한 조례,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으며 탄소중립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범군민 결의대회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시켜 왔다.

특히, 탄소포인트 가입 독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사회단체연합회 협약,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와 재사용 추진 등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성열 군수는 "이번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증평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원호/기자

고양시

# 사각관과

# 정의로운

##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 정의로운

##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culture  
문화

14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바래길 작은미술관 '남해 상상 발전소-절경 2부' 전시

남해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대안공간마루가 주관하는 제 5차 전시회인 '남해 상상 발전소 - 절경 2부'를 펼쳐 보인다.

강주연, 이규석, 정종효, 백외순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웹툰, 영상 등을 포함한 40점이 전시된다.

'상상 발전소-절경'은 작가들이 남해가 품은 자연과 삶을 들여다보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시다.

작품 속 남해는 치열하기보다 평화로움이 더 어울리는 곳, 수많은 섬들이 나열된 병풍 같은 곳, 소소한 야경 사진 하나를 더하고픈 평화롭고 고즈넉한 지역으로 표현된다.

강주연 작가의 사계는 남해의 사계절을 색으로 지정하고 추상적 집적으로 표현했고, 이규석 작가는 남해 바다를 TV화면 속 영상에 담아 관람객들에게 '몰입'을 유도한다.

이번 전시에는 남해 설리를 배경으로 한 웹툰도 선보이는데, 지역 소재 콘텐츠를 발굴하여 남해의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제작된 고양이마를 설리 웹툰의 일부가 미술관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는 플라보로 초대받은 김태연, 김형숙, 정인숙, 전서희 작가의 작품도 함께한다.

강영훈기자

### 파주시 한울도서관, 12월 테마전시 연계 '새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삶의 지혜'

파주시 한울도서관은 9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시선 + 테마전시의 연계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의 저자이자 국내 1호 지속가능경영(CSR) 컨설턴트인 유명훈 작가가 진행한다.

본 연계 강좌의 취지는 독자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나긴 코로나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과 주변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외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정체하지 않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자신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강좌다.

9일 1회차 '당신을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3일 2회차 '지속가능한 나로 살기 위한 라이프스타일 실현 방안', 16일 3회차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마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는 본 강좌를 기회로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각자의 일상에 적용해 보고 '자신만의 뉴노멀 라이프'를 설계해 볼 예정이다. 강의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보며 '뉴노멀 라이프'라는 이름 아래 평범하지 않은 일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의 시대상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 선포 국내외 아리랑의 중심 도시로 우뚝

정선군은 국내외 아리랑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선포했다.

군은 지난 12월 3일 아리랑센터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홍표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아리랑 관계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아리랑의 날을 지정·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내·외 아리랑 교류의 거점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정선아리랑 등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정선아리랑이 1971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되었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군에서는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전승·보존을 위해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왔다.

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통해 정선아리랑



랑제를 국내·외 아리랑 및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국가적인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선아리랑이 국내는 물론 세계속 아리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리랑 중심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공동체와 세대를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 언어로 창작,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축제·교육·공연 등 다양성을 접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 아리랑의 날이 지정·선포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남북한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민요가 아리랑인 만큼 정선군이 명실상부한 세계속 아리랑 교류의 중심 거점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릉시, '차茶, 자연을 마주하다' 전시 개최

### 강릉아트센터에서 차(茶)와 함께 즐기는 자연풍경

강릉아트센터 겨울 특별기획 '차茶, 자연을 마주하다' 전시를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강릉아트센터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예술을 통한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권광철, 권승연, 박익화, 하연수작가의 회화, 영상, 설치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자연의 사실적인 재현을 넘어 변화된 시간의 흐름과 익숙한 자연의 풍경과 다양한 변주를 통해 자연의

새로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을 다양한 형식의 찻자리와 함께 구성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전시공간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지침에 따라 전시장 내에 관람 인원을 제한해 안전한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무료이다.

이등원기자

##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GFE2021' 온라인 전시회 12월 6일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경기도 유망 화훼류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전시회 'GFE2021 (Korea Gyeonggi Flower Exhibition)'을 오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수출 상담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훼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수 화훼류의 판로 개척과 해외시장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위촉된 국내외 화훼산업이 제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영기기자

람회 등) ▲화훼 생산자·유통기업관 (한국화훼농업협회, 경기도 소재 화훼 수출 업체, 협회, 및 생산 농가) 등 31개 온라인 홍보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또한, 이 전시회의 참가업체들은 사전에 매칭된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해외 바이어들과 전시 기간 동안 온라인(비대면) 화상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여 해외 화훼시장 판로 개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박동길 대표인사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경기도 화훼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수 화훼류의 판로 개척과 해외시장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위촉된 국내외 화훼산업이 제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재밌는 발명체험으로 아이디어 샘솟는 제주 만들기

### 2021 제주발명축제, 6 ~ 11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제주도민의 창의·발명 인식 제고 및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1 제주발명축제'가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등이 주관한다.

제주발명축제는 아이디어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학생들이 '발명'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지 않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열리지 않았다. 올해 행사에 앞서 도와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자를 사전 모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을 위해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 온라인 부스 운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3D 모델링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특강이 열린다.

학생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창의력 프로그램, 메이커 미래교육 프로그램, 코딩 및 최신기술 친화적 프로그래밍 등 3가지의 분야에서 총 12개의 온라인 부스를 운영한다. 사전 신청자에게 체험꾸러미를 발송해

최재은기자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온라인 체험 동영상 을 보며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용 로봇인 '로보마스터S1'을 이용해 로봇메탈린지를 실시하며, 또한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디자인하고 후가공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제주발명 3D 디자인경연대회도 개최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발명축제에서 재밌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발명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고 이를 계기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제주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을 수원에서 만나다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하다 산화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남은 민주화 운동가, 윤상원 열사를 기억하는 '글과 수목, 사진으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전시회가 오는 1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다.

(새윤상원기념사업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윤상원 열사의 발자취를 통해 광주민주항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윤상원 열사는 195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뒤 1975년제대 후 유신독재에 대항해 노동운동을 시작, 1980년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다음 날인 5월 27일 새벽 향전을 이끈다 산화했다. 이후 그를 주인공으로 한 노래를 통해 현정된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전시는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조혜영기자

먼저 전시1실에서는 광주 출신 중견화가 하성흡이 그린 윤상원의 일대기 작품과 조각가 김광래의 윤상원 열사 흉상 조소를 만날 수 있다.

전시2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 성남훈이 찍은 광주 민주항쟁 당시 사진을 통해 윤상원 열사의 행적을 확인하고, 동지이자 친구 김상집이 쓴 '윤상우 평전'이 전시됐다.

이어 전시3실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작성하다 광주항쟁으로 멈춰진 윤상원의 일기를 통해 그의 노동운동가 활동 시기를 엿본다.

전시4실은 항쟁 당시 현장에 있던 이태복·김상운·이양현·김상집·전용호 등 5인의 인터뷰를 비주얼 아트리스트 김지욱의 영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 전시5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를 넘어 홍콩, 미얀마 등 세계 민주화 항쟁 현장을 다큐멘터리 사진가 주용성이 담아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일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태영 수원시장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며 "많은 시민께서 윤상원 전시회를 관람하고, 5월의 광주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부산시, '제1회 부산시 자치분권 시민공감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 선정, 대상 200만 원 등 총 상금 550만 원 지급

부산시가 「제1회 부산광역시 자치분권 시민공감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총 6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회 부산광역시 자치분권 시민공감 콘텐츠 공모전」은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분권 문화 확산을 통한 자치분권 선도 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산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를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주민자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모습 등을 담은 작품을 지난 10월 24일까지 총 16편 접수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점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주민에서 주인이 되어 내일의 부산을 열어주세요'(최민혁)가 뽑혔다. 부산시 로고와 함께 자치분권을 의미하는 열쇠를 은장(銀匠)으로 만들어, 공무원을 의미하는 한 사람이 시민을 의미하는 다른 한 사람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이미지를 포스터로 그려내 부산시민들이 자치분권에 참여해 내일의 부산을 만드는 데 동참을 유도하고자 했다.

남영기기자

우수상에는 '지역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지방분권 이야기'(김준성)와 '주민이 주인인 부산'(최인환)이 각각 선정됐다. 김준성 씨 작품은 웹툰 형태로 지역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 교육 문제, 지역시설 설치 문제 등을 자치분권으로 해결해나가는 내용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최인환 씨 작품은 포스터로 주민을 상징하는 '주머니' 캐릭터와 함께 자치분권의 정책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시민이 함께 맞춰가는 자치분권'(윤소연, 포스터), '지역행복권 자치분권'(최미성, 웹툰), '뿌자와 뿌치'(김용진, 캐릭터) 등 3개 작품이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산 시장상과 함께 대상 200만 원, 우수상 각각 100만 원, 장려 각 5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수상작은 부산 자치분권 문화조성을 위한 분권운동 홍보물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지방분권 홍보활동 캐치프레이즈(선전 구호)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삼중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부산 자치분권 '봄' 조성을 위한 소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자치분권 홍보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상남도,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2022년 정부예산 30억 원 반영



## 내년 정부예산 반영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 탄력 전망

경상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에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국비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자치체 조기실현을 위한 전동열차 도입의 필요성 등을 국회에 비롯한 정부부처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의 절실함에 여·야가 따로 없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2022년 정부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30억 원은 기본설계비와 전동열차(4량 5편성) 구입비 일부로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를 동해남부선과 연계하여 1단계 창원~부산~울산 간, 2단계 진주~창원~부산~울산 간, 3단계 부산~울산 간을 잇는 광역전철망이 형성되면 수도권과 같은 철도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경제공동체 구축 및 동인생활권 실현 등 시·도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남해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민자사업\*은 202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발생한 침하사고

복구공사도 2021년 11월 기준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경전선에서 경부선을 우회하는 창원~삼랑진~양산~부산 간(87km)을 창원~김해~부산(50.3km)으로 직접 연결하여 37km가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기존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55분이 짧아진다.

창원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이 30분대, 진주~부산·울산 간은 1시간대로 짧아져 경남도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부울경 연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연계하면 대구~김천~진주~창원(마산)~부산(부전)~울산까지 운행으로 경남의 주요 거점 도시가 인근 대도시와 그물망 같은 철도망으로 구축되어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한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창원~부산~울산을 연결하는 전동열차 도입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이 가시화되고 더 나아가 진주~창원~부산~울산 4대 거점도시 간 철도망 형성으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더욱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대통령께 부울경 메가시티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부전~마산 구간 전동열차 조기 도입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윤광남/대기자

# 화순군, 최초 '국비 1200억 시대' 열다...사상 최대 국비 확보

## 내년도 국고예산, 올해보다 364억 증액...백신·바이오 분야 대거 반영

화순군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며 '국비 예산 1200억 시대'를 열었다.

화순군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 등 국고 예산 126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의 국비 예산은 2021년 896억보다 무려 40.6%(364억) 늘어난 규모로, 처음으로 '국비 1200억 시대'가 열렸다.

내년도 예산에 정부의 K-글로벌 허브화 전략 계획과 연계해 발굴한 신규 사업, 지역 현안 사업비가 대거 반영돼 백신·바이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백신·바이오 분야에선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263억·반영액 96억) ▲m-RNA 백신 실증지

원 기반 구축(430억·14억)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 사업(40억·28억),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441억·131억) 등 13개 사업 519억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총사업비 20억·반영액 10억) ▲한천 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50억·10억) 등 6개 사업 32억이 반영됐다.

재난재해 정비 사업과 농촌 생활 기반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유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및 저수지 정비 사업, 농촌 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공도를 통해 선정된 농촌 협약 사업, 공공하수도 13개 사업 등 34개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다.

연초부터 정부 정책 동향과 예산

편성 방향을 분석,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다.

구중곤 군수의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중앙 정치권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행보와 의지, 공직자들이 의기투합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줄기차게 건의해 얻은 성과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1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2023년도 정부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조기에 신규 사업을 발굴, 선정해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영천시,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장 이·취임식

## 세계주철 최익구 대표 제25대 회장 취임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는 지난 3일 영천시 스타컨벤션웨딩(스타홀)에서 최기문 영천시시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회장, 영천교류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24대 정근섭 회장(주)대영산업 대표이 이 임하고, 제25대 최익구 회장(주)세계주철 대표이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최익구 신임 회장은 세계주철 대표로 맨홀, 상수도관 등 주철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 개발에 힘써 매출액을 신장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최익구 신임 회장은 “모든 회원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고성장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이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고 중소기업과 이업종간 소통 및 상호 교류를 통한 경영 활동에 적극 협력 하겠으며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는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회원 상호 간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교류 활동으로 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1992년 창립되어 현재 46개 회원을 두고 있다.

또한, 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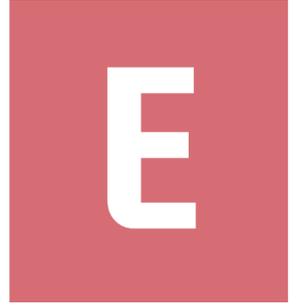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 최익구 신임 회장 취임을 기념해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에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주철 대표 최익구 회장도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금까지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영천교류회가 총 11회, 4천1백만원, 세계주철 대표 최익구 회장이 총 4회, 1천1백만원을 영천시 장학회에 기탁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새로 취임하시는 최익구 회장님을 주축으로 회원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업인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만큼 항상 도전하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 Economy

###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광명시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

광명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그간의 주민자치회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1기 주민자치회 소감 나눔, 2기 주민자치회 위원 소개, 위촉장 전달, 결의문 낭독,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7동은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11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기존 위원의 연임 여부를 확정하고,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신규위원을 모집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 35명에 대한 최종 의결을 마쳤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동 제2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역사회 봉사자로 주민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민과의 소통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7동은 2019년 광명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년간 분과·임원·네트워크 회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민을 위한 마을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써왔다.

윤용민/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 숲

한국의 자연을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숲과 주시마를

### 길

천년전 이어져온 아름다운 옛길과 800년전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 빛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 맛

사백년 전통의 맛, 반가의 레시피, 정갈한 영양 요리

###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었다! 영양연소장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게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시마를,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Entertainment

연예

16 문화매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K뮤지컬로 재탄생한 '이퀄', 타로 콘셉트 포스터 공개

세기말의 혼돈과 혼란으로 요동치는 17세기 유럽을 고스란히 K 뮤지컬로 옮긴 작품 '이퀄'이 오는 12월 28일 무대 위에 오른다.

뮤지컬 '이퀄'은 2020년 한국에서 초연된 일본의 천재 작가 겸 연출가 스에미츠 케이치의 동명 연극을 K 뮤지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배경은 마녀와 이단자 사냥이 유행하던 17세기 유럽. 뛰어난 의사였지만 불치병에 걸려 하루하루 죽어가는 니콜라와 그런 니콜라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친구 테오가 주인공으로, 당대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니콜라에게 금지된 학문인 \*연금술을 사용하려는 테오의 절박한 욕망에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뒤틀려버린다.

공연 전문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 (주)메타씨어터(대표 신정화)의 자회사인 K 뮤지컬 제작사 썬신스웨이브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유행하고 삶과 죽음의 명암이 시시각각 교차하며 혼돈에 빠진 현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반영한 작품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작품의 제목 '이퀄(EQUAL)'이 의미하듯 일반적으로 강요된 '하나됨(one)'이 아닌, '동등한, 등가의(equal)' 존재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두 친구의 일주일이 그려진다.

또한 고립된 환경 속에 역병과 이단자 사냥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외로운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생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게 될 것이다.

절묘하게 맞닿아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이야기 못지 않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포스터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뮤지컬 '이퀄' 포스터의 메인 테마는 점성술, 연금술 등을 받아들이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타로'다.

흑사병과 르네상스, 코로나와 메타라는 키워드를 타로라는 이미지 콘셉트로 형상화한 이번 포스터에는 욕망을 위해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뮤지컬 '이퀄'의 주제와 인물들의 상징성을 담았다.

또한 뮤지컬 '이퀄'은 12월 28일 첫 공연부터 약 두 달간 공연 전문 글로벌 플랫폼 '메타씨어터'와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 1관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공연을 동시에 진행한다.

K 뮤지컬의 확장 가능성에 도전하는 메타씨어터를 통해 보다 많은 관객들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K 뮤지컬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메타씨어터 신정화 대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자칫 다시 주춤할 수 있는 공연문화, 특히 한국 창작뮤지컬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인 메타씨어터가 안정적인 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클라이밍 가젯 영상

킹스맨 시그니처 가젯 액션의 기원부터 극장의 긴장감까지!



오는 12월 22일 개봉을 확정하며 전 세계에 또 한 번의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는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가 '킹스맨' 시리즈의 시그니처인 가젯 액션의 기원은 물론 차원이 다른 긴장감을 선사하는 '클라이밍 가젯 영상'을 최초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독립 정보

기관 '킹스맨'을 이끄는 '옥스포드 공작'(랄프 파인즈)이 낭떠러지에 매달린 채 시작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빙벽을 오르기 위해 한 손에는 칼을 쥐고 구두 끝에는 칼을 쫓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 등장했던 구두 끝에서 독이 묻은 칼이나 상대를 공격하는 신개념 가젯을 연상시켜 '킹스맨' 시리즈의 팬들을 열광케 만든다.

이어 낙하산이 걸린 나뭇가지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돼 긴장감을 자아내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더한다.

이처럼 이번 공개된 '클라이밍 가젯 영상'에서는 킹스맨의 기원과 함께 NEW 클래식 액션을 선보일 이번 작품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어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전쟁을 모의하는 역사상 최악의 폭군들과 범죄자들에게 맞서, 이들을 막으려는 한 사람과 최초의 독립 정보기관 '킹스맨'의 기원을 그린 작품이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부터 '킹스맨: 골든 서클'까지 '킹스맨' 시리즈

로 전 세계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매튜 본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 특유의 화려한 액션과 재치 넘치는 대사, 한 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로 '킹스맨의 시작'이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담아내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여기에 '해리포터' 시리즈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007 스펙터'까지 다양한 흥행작에 출연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은 랄프 파인즈와 '말레피센트 2'에서 '필립 왕자' 역으로 주목받은 해리스 딕킨슨이 새로운 '킹스맨'의 완벽한 조합을 선보일 예정이며, 또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겨울나라의 엘리스'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리스 이판이 강력한 빌런으로 변신했고, '007 퀴트 오브 솔러스'의 켈마 아터튼, '캡틴 마블', '아쿠아맨'의 디몬 하우수,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스토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매튜 구드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역대급 연기 앙상블을 예고한다.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뭉쳐 완전히 새로운 '킹스맨'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12월 22일 개봉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규현-정택은, 완벽 라이브 클립 영상 공개



### 시사 장인들의 몰입도 200% 라이브 영상 조회수 폭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출연 중인 규현과 정택은의 라이브 클립 영상이 지난달 29일 네이버 공연전시를 통해 선공개, 1일 SNS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9일 네이버 공연 전시에 선공개된 두 넘버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와 '너의 꿈 속에서'는 초연부터 지금까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표곡으로 이번 라이브 클립에선 네 번째 시즌에 합류한 뉴 캐스트 규현과 정택은이 완벽하게 캐릭터에 몰입하여 열창해 눈길을 끌었다.

규현이 노래한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단두대에서 처형된 '앙리 뒤프레'의 잘린 목을 실험실로 가져온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려는 실험의 순간 시작되는 곡이다.

라이브 클립 영상 속 규현은 곡의 초반 어두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깊은 저음으로 자신의 생명체가 탄생될 것을 확고하게 믿는 광기 어린 모습을 생생하게 연기해 무대 위 '빅터' 그 자체를 보는 듯한 작가를 일으킨다.

규현의 라이브 클립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은 "현장에서의 웅장한 성량을 직접 가서 보면 쓰러진다", "숨 넘어갈 정도로 빨리 들어갔다. 실제로 보러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며 실제 공연에서 보여줄 규현만의 목직인 빅터에 대한 기대감을 수직상승시켰다.

정택은의 '너의 꿈 속에서'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명곡으로, 작품 속 '앙리 뒤프레'가 자의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기 전 부르는 곡이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눈을 꼭 감은 정택은은 '앙리 뒤프레'로 완전 몰입해 빅터와의 우정과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앙리'의 두려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그려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기존의 '너의 꿈 속에서'와는 또 다른 애절함으로 표현한 정택은의 라이브 클립을 본 팬들은 "실제로 '너꿈속' 부를 때 '죽음'보다도 '널 위할 수 있음에 행복해'에 초점을 둔 것 같다. 새로운 캐릭터 해석 대박이다", "이 넘버 들을 때마다 우는 중이다. 영상도 좋는데 현장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며 폭발적인 호응을 보냈다.

2014년 초연 당시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뮤지컬'과 '올해의 창작 뮤지컬'에 동시 선정되며 총 9개 부문을 수상한 '프랑켄슈타인'은 매 시즌 경이로운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언론과 관객들의 호평 속 '최고의 화제작'이자 '최대 흥행작'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또한 2016년 재연에서는 개막 10주 만에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하며 단일 시즌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일본의 대형 제작사 토호 프로덕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현지에서도 독보적인 흥행 기록을 올려 한국 뮤지컬의 역사를 새로이 썼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개막 전 라이브 클립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지난 24일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 속 첫 공연을 무사히 마쳤으며 민우혁, 정동석, 규현, 박은태, 카이, 정택은, 해나, 이봄소리, 서지영, 김지우, 이희정, 서현철, 김대중, 이정수 등 압도적인 캐스팅과 함께 내년 2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공개된 민우혁의 라이브 클립 '후회'는 민우혁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과 짙은 호소력으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복합적인 감정을 영상에 담아내었다. "알고리즘에 뜨길래 무심코 눌렀다가 과몰입해서 울어버렸다", "민빅 눈빛이 너무 슬프다"며 객석에 최재은/기자

## 이석훈, SG워너비의 2021년 '역주행 신화' 솔직한 소감 고백!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 이석훈이 2021년을 달궜던 SG워너비의 역주행 신화에 대한 소감을 고백해 눈길을 끈다.

3일 방송된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채널S & SM C&C STUDIO 공동제작/ 프로듀서 김수현, 연출 진선미)에서는 이석훈이 과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활동했던 시절과 올해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큰 사랑을 받은 SG워너비의 활동을 돌아보며 소감을 전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박선영, 비유진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이날 성시경은 "SG워너비의 역주행이 대단했다"고 언급하며 이석훈을 치켜세웠다. 이석훈은 SG워너비 완전체로 올해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김용준, 김진호와 함께 히트곡 무대를 선보이며 역주행 열풍을 이끌 어낸 바 있다.

2021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소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석훈은 "굉장히 행복하기도 했는데 한동안은 불안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꾸준히 활동했



는데 갑자기 이런 관심이 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다"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에 행복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던 소감을 밝혔다.

이에 성시경은 가요계 후배 이석훈에게 "실력 있고 인성 좋은 사람이 잘 될 때 가장 기본 좋다. 행복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이석훈은 과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활발히 활동했던 시절도 회상했다. 그는 "바블 때는 하루 이동 거리가 1,000km가 넘는 적도 있다"며 "매니저 형이 피곤해하면 내가 대신 운전하

기도 했다"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이석훈은 "예전에 성시경 형이 본인이 만든 곡을 내가 들었던 좋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근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면서 "일단 솔 먼저 마시지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 외에도 이석훈은 SG워너비 멤버들의 휴게소 음식 취향도 공개했다. 두 멤버의 취향이 상반된 가운데 그 사이에서 음식을 뺏어 먹는 멤버도 있다고 해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최만식/기자

## '배우 배두나' 6일 출간

배우 연구서적 '배우 이병헌'에 이어 '배우 배두나'가 오는 6일 발간된다.

배우학을 표방해 '액톨로지(Actorology) 시리즈' 첫번째 편으로 지난해 11월26일 출간된 도서 '배우 이병헌'은 예술-영화 서적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이번에 나오는 '배우 배두나'는 글로벌 배우, 라이프 아이콘, 선망의 패셔너지 23년간 자리를 지켜온 배우 배두나에 대한 연기 해부, 스타로서의 영향력 분석, 동료의 증언, 전대미문의 뇌실험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캐이스티파이, 포터, 아시스, 빔즈 등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유나 가바가 배우 배두나의 필모그래피 중 대표적인 7가지 순간을 재해석해 그림으로 녹여냈다.

여기에 배두나의 대표작을 함께 해온 배우와 스태프들이 진솔한 인터뷰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비밀의 숲' 조승우, '코리아' 한예리, '플란다스의 개'·'괴물' 봉준호, '공기인형' 고



레에다 또 니콜라 제스키에르 루이비통 아티스틱 디렉터, 김민영 넷플릭스 부사장 인터뷰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로운 시도도 눈길을 끈다. 정재

최광수/기자